

「계체기」의 諸問題 -특히 近江毛野臣의 전승을 중심으로-*

譯 위가아**

-
- I. 「繼體紀」 한국 관계 기사의 분석
 - II. 繼體 崩年과 空位의 문제
 - III. 近江毛野臣의 가라 경영
 - IV. 결어
-

I. 「繼體紀」 한국¹⁾ 관계 기사의 분석

「繼體紀」를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 천황이 즉위한 사정이 매우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상세하게 기재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에 반해 치세에 관한 국내 기사가 거의 없고 계체기의 내용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관계의 기사이다. 우선 2년 조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했다(耽羅人初通百濟國)”라고 하는 일본과는 전혀 관계 없는 기사로 시작해서 24년 조의 近江毛野臣의 加羅 경영 종말에 이르기까지가 대부분 한국 관계 기사이고, 최후의 25년

* 이 글은 三品彰英, 1966, 「「繼體紀」의 諸問題-特に 近江毛野臣의 所傳を中心として-」, 『日本書紀研究』 2, 塙書房를 번역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1) [역자 주] 원문은 ‘朝鮮’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국’으로 번역하였다.

조 천황 崩御 기사마저 그 연차에 관해 『百濟本記』에 의거해 고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내 관계에도 두세 가지 기제가 있다. 예를 들면 7년 조에는 勾大兄 皇子와 春日 皇女가 주고받은 노래와 그것에 연관시켜 『日本書紀』의 찬자가 작문한 조칙이 보이고, 또 24년 2월 조에도 장문의 조칙이 게재되고 있는데, 특히 후자는 『藝文類聚』에 의거해 작문된 것이다[고지마 노리유키(小島憲之) 『상대 일본문학과 중국문학』 상, 384쪽].²⁾ 20년 가을 9월 丁酉朔 己酉 조의 “도읍을 磐余玉穗로 옮겼다[다른 책에서는 7년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기는 불안하다. 또한 21년 조의 築紫國造 磐井의 반란도 近江毛野臣의 한반도³⁾ 경영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한국 관계 기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한국 관계 기사를 내용적으로 점검하면 문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A군 기사 - 임나 4현을 백제에 할양하는 문제로 穗積臣押山이 주역이다(A1 6년 여름 4월 조, A2 겨울 12월 조).

B군 기사 - 己汶과 帶沙를 백제와 伴跋 양국이 다투어 바란 사건으로 物部連이 그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B1 7년 여름 6월 조, B2 7년 11월 조, B3 是月 조, B4 8년 3월 조, B5 9년 봄 2월 조, B6 是月 조, B7 9년 여름 4월 조, B8 10년 여름 5월 조,

B9 10년 가을 9월 조, B10 戊寅 조).

C군 기사 - 近江毛野臣의 南加羅 부흥 경영[C1 21년 여름 6월 조, C2 위엣 기사 “於是” 이하, C3 23년 봄 3월, 이달에 近江毛野臣을 보내어 운운하는(是月遣近江毛野臣 云云) 조, C4 23년 여름 4월, 이달에

2) [역자 주]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上-出典論を中心とする比較文學的考察』, 塙書房. 저자가 인용한 논문의 서지 정보를 역자 주석으로 정리했다. 이하 동일.

3) [역자 주] 원문은 ‘韓土’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반도’로 번역하였다.

사신을 보내어 운운하는(是月遣使云云) 조, C5 같은 기사, 이에 毛野臣이 웅천에 가서 운운하는(於是毛野臣次于熊川云云) 조, C6 24년 가을 9월 조, C7 같은 기사, 이에 아리사등이 운운하는(於是阿利斯等云云) 조, C8 24년 10월 조, C9 24년 是歲 조].

D군 기사 - 加羅國의 동향[D1 23년 봄 3월 조, D2 같은 기사, 是月 조, D3 위엿 기사, 이에 가라왕이 운운하는(於是加羅王云云) 조, D4 위엿 기사, 이로 말미암아 가라가 신라와 결당하여 운운하는(由是加羅結儻新羅云云) 이하, D5 23년 여름 4월 조, D6 24년 가을 9월, 이에 아리사등이 운운하는(於是阿利斯等云云) 이하].

위의 문제별로 정리한 네 개 군의 기사를 A1·A2 등으로 잘게 나누는 것은 그 사료 계통과 『일본서기』 찬자의 편찬 과정을 고찰하는 편의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체기」 기사의 대부분이 한국 관계 기사이지만 거기에 보이는 가장 주의해야할 특색은 한국 문제를 말하는 각각의 기사가 사료적으로 한국 계통의 문헌과 일본 쪽의 전승을 교묘하게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欽明紀」와 비교하면 「흠명기」도 한국 관계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계체기」와 같지만 「흠명기」 한국 관계 기사의 대부분이 백제 계통의 문헌을 일변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계체기」와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 따라서 「흠명기」 기사의 해설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계체기」의 경우는 한일⁴⁾ 두 계통의 전승이 짜 맞추어진 위에 요령 있게 정리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분석해서 새롭게 역사적 재구성을 시도해 보는 것은 꽤나 곤란한 작업이다. 그렇지만 곤란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에 몰두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결론의 당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해서 「계체기」 연구의 실마리로 삼고 싶은 것이다.

4) [역자 주] 원문은 ‘日鮮’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일’로 번역하였다.

앞에서 한국 관계 기사를 네 가지 문제로 정리했지만 그들 가운데 A군과 B군은 6년부터 10년에 걸쳐 해를 이어 기재되었고 C군과 D군은 23년과 24년에 걸쳐 기재되고 있다. 또한 A·B기사군과 C·D기사군은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0여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 연대기로서는 부조화한 감을 일으키게 한다. 실은 이 연대기적 공백은 史實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서기』 편찬 즈음에 같은 사건에 관한 별개 사료의 취급 및 그 연차 배치의 서투름에서 생겨난 것 같다. 따라서 사실을 고증할 때는 그 공백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를 관계있는 일이 연속한 것으로 생각해 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C군과 D군은 그 기사가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원문의 독해가 매우 곤란하여 아마도 통독한 것만으로는 아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서 C군과 D군으로 분류한 것도 이 23년과 24년의 기사 내용을 독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사를 분해해 가지 않으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건의 관계를 읽어내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일본서기』 찬자가 몇 가지 계통의 전승을 분단하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연결하고 합쳐서 일련의 기사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므로, 독해의 순서로서는 우선 이 장문의 기사를 나누어 쪼개서 가능한 한 원래의 사료로 환원하고 개개의 전승의 형태로 이해해서 각각의 사건에 상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계체기」의 시대는 백제에서는 무령왕에서 성왕의 초기에 걸쳐 있고 신라에서는 지증왕과 법흥왕의 시대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신라왕 대사는 이 시대가 되면 제법 그 신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일 사료를 비교하고 고증할 때에도 거기서 기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백제 쪽의 역사, 예를 들면 『삼국사기』의 「百濟本紀」는 그 기사 내용이 지극히 간단해서 일본과의 관계, 특히 백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加羅諸國과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무엇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아 고증의 단서가 찾아지지 않지만 그 점에서 「계체기」는 「

흡명기』와 함께 백제와 가라의 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기사를 분석함에 따라 백제 쪽의 전승과 일본 쪽의 전승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낼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계체기」의 문제점과 그 하나의 독해 방법을 이상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계체기」는 한일 기사를 고증할 때 가장 흥미가 생기는 皇代紀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로 A·B 양 군의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날로 미루고, C·D 양 군의 기사, 즉 23년과 24년의 기사에 대해서 논고하고 그것과 관련된 25년 조의 계체천황 붕어 연차의 문제를 아울러 취급해 가고 싶다. 또한 「계체기」의 기사를 분석할 때 앞뒤의 의미와 내용이 이어지는 상태가 순조롭지 않은 부분이 첫째로 주의를 끄는데, 그것과 함께 문장의 형식상으로 별개의 사료를 결합하거나 또한 그 사이의 앞뒤를 연결시키기 위해 보충하는 문구를 넣거나 하는 경우에 찬자는 ‘於是’, ‘由是’, ‘是歲’, ‘是月’이라고 하는 접속사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의 작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장상의 어구 형식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위에서 든 각 군의 기사를 쪼개고 나눈 세세한 구분은 그러한 기준에서 시도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접속사적 어구를 곳곳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3년과 24년의 두 조이고, 형식적으로 말해서 이 양 년도의 기사가 특히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계체기」 찬술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계체의 붕어 이후 연차에 대해서 해설을 시도해 보자.

II. 繼體 崩年과 空位의 문제

1. 「계체기」의 붕년 기사

『일본서기』 찬자가 계체천황의 붕년을 생각하여 정할 때 손에 넣은 문헌이 두 개 있다. 즉 하나는 甲寅(534) 崩御을 전하는 「或本」이고

다른 것은 辛亥(531)라고 하는 『백제본기』의 전승이었다. 그리하여 찬자는 「혹본」의 갑인설을 배척하고 “이에 25년 신해 간지의 해에 봉어 하셨다고 한 것은 백제본기를 취해서 글을 쓴 것이다”(「계체기」25년 겨울 12월 조의 分注)라고 原注를 달고 있는 것처럼 신해를 봉년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계체 봉년의 불명확함 및 그 때문에 생긴 『일본서기』 기년에서 보이는 계체 봉어 후의 공위 등이 지금까지 역사가의 주의를 끌어서 여러 가지로 사론이 시도되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체의 봉년 및 그 후에 생긴 공위를 특수한 의미가 있는 사실적인 문제로서 논하기에 앞서 『일본서기』 찬술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봉년의 異說과 공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또한 이설이 생기게 된 원래의 사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사실의 논고에 선행해야 할 준비 작업이다. 또한 사실의 구명보다도 편찬 과정의 검토가 사학적으로 성공의 가망이 큰 과제이기도 하다.

현존 「계체기」가 생기기 전의 「혹본」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적이었을까. 이 「혹본」의 신해⁵⁾ 봉년에 따르면 계체와 宣化의 사이에는 공위도 없다. 따라서 앞뒤가 서로 연결된 皇代曆이었던 것은 두 紀를 읽어나가면 쉽게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계체기」의 찬자는 『백제본기』를 많이 이용해서 「계체기」의 한국 관계 기사를 한데 모아 이어붙인 것이어서 分注에 『백제본기』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는 곳만 해도 이 봉년의 조 외에, 3년과 7년, 9년의 여러 조에 그것이 보인다. 이 외에 「一本云」이라고 하는 한국 계통의 문헌이 20년과 23년(4개소), 24년의 여러 조에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백제본기』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 계통의 문헌을 활용해 온 찬자로서는 필연적으로 계체의 봉년에 관해서도 또한 그것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지금까지의 「혹본」의 황대력을 정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백제본기』라는 것의 신빙성 여하에 있다.

5) [역자 주] 계체 천황의 봉년을 ‘신해’로 기록한 것은 『백제본기』이고, 「혹본」은 ‘갑인’이다. 따라서 원문의 ‘신해’는 ‘갑인’의 오프로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한국 쪽의 연대사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왕력)의 두 책이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이 시기는 백제에서는 성명왕(성왕)대에 신라에서는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해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백제 성명왕의 즉위와 薨去 및 치세의 햇수에 관해서는 이설이 보이기 때문에 우선 순서에 따라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성명왕의 원년을 523년 癸卯라고 했다. 이 점은 「계체기」 18년 甲辰(524) 조에 “봄 정월에 백제태자 명이 즉위하였다(春正月, 百濟太子明立)”(『백제본기』에 의거했다고 추정된다)라고 적혀있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그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있지만 전자는 전왕 薨年에 신왕이 칭원하는 當年칭원법을 취하고 있고 후자는 越年칭원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칭원 형식상 1년의 차이가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삼국유사』 왕력은 각 왕의 즉위 간지와 치세 햇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백제 왕력에 관해서는 그 즉위 간지와 치세 햇수 양자가 다른 계통의 전승을 따른 듯한 대목들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성명왕에 대해서 보면 “제26대 성왕, 이름은 명농이고 호령왕의 아들이다. 계사년에 즉위하여 31년을 다스렸다. 무오년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남부여라고 칭했다(第二十六聖王, 名明農, 虎寧王子, 癸巳立, 理三十一年, 戊午移都泗泚, 稱南夫餘)”라고 적혀있어 癸巳年 즉 513년 즉위라고 하고 있는 점은 앞서 든 『삼국사기』와의 사이에 10년의 차이가 있다. 이 『삼국유사』의 계사설을 오기라고 해야 할까, 또는 하나의 이설로서 채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가사이와진(笠井倭人)씨는 「삼국유사 백제왕력과 일본서기」(『조선학보』 제24집에 수록)이라는⁶⁾ 좋은 논문에서 고증을 시도하여 그것이 다른 전승으로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 치세 햇수에 따른 계산에 따라 계통이 다른 왕대력의 존재를 상정하고 성명왕에 관해서는 “31년을 다스렸다”라고 적혀있는 치세 햇수로부터 추산하여 ‘527년 丁未 즉위’설이 존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6) [역자 주] 笠井倭人, 1962, 「三國遺事百濟王曆と日本書紀」, 『朝鮮學報』 24.

차용하고 싶은 것은 이 정미 즉위설이다.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체기』와 『흑본』, 『백제본기』, 『삼국사기』 『백제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유사』의 치세 햇수에 따른 백제 왕력을 대비해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성명왕대 한일 왕력 비교 연표

서기 /간지	일본서기			삼국사기		삼국 유사 치세 수에 따른 역년	기사
	계체기	흑본	백제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513/癸巳	계체 7				지증14		
524/甲午	8				15 법흥 1		
515	9				2		
...							
522/壬寅	16			무령 22	9		
523/癸卯	17		무령 22	23 성명 1	10		5월무령왕흥거 (계체기)
524/甲辰	18		성명 1	2	11		1월명왕즉위 (위와 같음) (양서)
525/乙巳	19		2	3	12		
526	20		3	4	13		
527/丁未	21		4	5	14	성명 1	
528	22		5	6	15	2	
529	23		6	7	16	3	○금관국멸망 (계체기)
530	24		7	8	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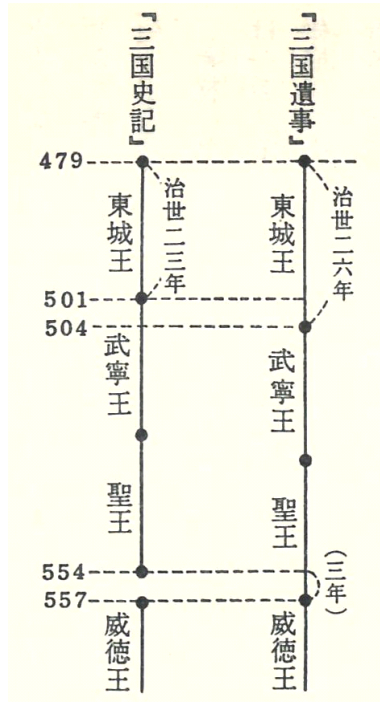
531/辛亥	25	계체 25	8	9	18	5	△계체봉어 (백제본기)
532/壬子	공위	26	9	10	19	6	○금관국멸망 (사기·유사)
533	공위	27	10	11	20	7	
534/甲寅	안한 1	28	11	12	21	8	△계체봉어 (혹본)
535/乙卯	2		12	13	22	9	
536/丙辰	선화 1		13	14	23	10	
537/丁巳	2		14	15	24	11	
538/戊午	3		15	16	25	12	
539/己未	4		16	17	26	13	
540/庚申	흠명 1		17	18	27 진흥 1	14	
541	2		18	19	2	15	
...							
553	14		30	31	14	27	
554/甲戌	15		31	32 1	15	28	12월성명왕전사 (흠명기)
555/乙亥	16		공위	위덕 2	16	29	
556/丙子	17		공위	3	17	30	
557/丁丑	18		위덕 1	4	18	31	3월위덕왕즉위 (同)

이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계체의 봉년에 대해서는 현 「계체기」(『백제본기』에 따른)와 「혹본」에 3년의 차이가 보이지만 한편으로 백제 성명왕의 즉위 연차도 『백제본기』와 『삼국유사』 왕력의 치세 했수에 따른 것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3년의 차이가 있다. 즉 「혹본」은 『삼국유사』의 그것과 서로 조응하는 피아의 왕력이다. 바꿔 말하면 『일본서기』 찬자가 버린 「혹본」의 황대력의 처지가 반드시 고립무원은 아닌 것이다. 이 시대 한일 여러 왕국의 왕력 가운데 가장 신빙도가 높

은 것은 「신라본기」이므로 지금 그것과 비교하면 금관국(남가라)의 멸망은 신라 법흥왕 19년(532)이지만, 「계체기」에서는 이 사건이 23년(529)에 기재되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3년이 끌어올려져 있다. 이 사건의 사실연차가 「신라본기」를 따라야 하는 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고찰하는 대로이지만, 결국 이 금관국 멸망 기사가 3년의 끌어올려진 것도 계체 봉년이 3년 끌어올려진 것의 여과를 받은 결과이다. 요컨대 「혹본」과 「신라본기」, 『삼국유사』의 치세 햇수와 왕력¹⁾은 서로 조응하고 모순되지 않는 일군의 전승(앞 표의 굵은 숫자)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 계열의 전승에서 보면 계체의 갑인 봉어는 신라 법흥왕 21년 갑인에 해당하고 또한 『삼국유사』 치세 햇수 왕력의 성명왕 8년 갑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백제본기』의 성명왕 8년은 신해(531)로 3년의 여긋남이 보이므로 이른바 계체 봉년 3년 끌어올리기는 『백제본기』의 백제 성명왕력을 3년 끌어올린 것과 동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바꿔 말하면 계체 봉년에 대한 양 설은 성명왕 8년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이 성명왕 8년이 백제 쪽의 연표에서는 갑인과 신해의 두 전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체 봉년의 인상은 단순한 「계체기」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도 오히려 성명왕력의 문제로 옮겨 간다. 이른바 3년 끌어올리기의 진원은 백제의 왕력 쪽에 있던 것이다.

이리하여 초점을 성명왕력으로 옮길 때 어째서 이와 같은 3년의 오차가 있는 다른 전승이 생겼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성명왕에 대해 특별히 적을 만한 일은 신라에 대한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접근정책을 수행한 것이었지만, 554년 甲戌에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불운하게도 적의 손에 떨어져 참수되었다고 하는 비극적 운명의 최후를 거두었다. 『삼국사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흠명기』 15년 갑술 이하에 상술된 사태는 당시 백제 왕실의 사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즉 그 즈음 전장을 빠져나온 왕자 여창(위덕왕)은 “지금 바라는 것은 왕을 받들기 위해 출가해서 도를 닦기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왕위를 이을 의지마저 없었지만 늙은

신하들의 간언이 있고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원군도 도착했으므로 557년 丁丑 봄 3월에 이르러 겨우 즉위했다(『흠명기』 18년 조). 그런 까닭으로 3년간, 즉 백제 왕위에 실제로 3년의 공위가 생긴 것이며 그것은 패전 후의 사정으로서는 또한 어쩔 수 없는 사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가는 이 3년의 사실적 공위를 편찬사 상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일까. 사실에 입각해서 3년의 공위를 그대로 인정하면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3년을 전후 두 왕대 어딘가의 치세 안에 엮어 넣어서 왕대력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국유사』 백제 왕력(치세 햇수에 따른)은 이 3년을 성명왕 치세 31년간의 안에 엮어 넣어서 527년 정미로부터 557년 정축(『흠명기』 18년)에 이르는 재위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행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성명왕이 전사한 해, 즉 554년 갑술(『흠명기』 15년)을 성왕대의 마지막 해로 하고 또한 당년칭원법에 따라 다음 대인 위덕왕 원년을 같은 해에 배치하여 문제의 3년을 위덕왕대에 엮어 넣고 있다. 『일본서기』에 사용된 『백제본기』는 전술한 것처럼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다만 월년칭원법을 따라 524년 갑진에 성명 원년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성왕이 전사한 해를 왕대의 마지막 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의 『백제본기』 이용은 성명왕대에 해당하는 기사의 뒤에는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아마도 『백제본기』라는 것은 성명왕대 이후에는 서술이 이르고 있지 않는 사서로 추단되기 때문에 위덕왕 원년의 연차적 취급이 어땠는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오면 백제 왕력에서 3년의 차이를 가지는 두 흐름의 사적은 3년의 사실적 공위의 취급으로부터 생긴 편찬 과정이 서로 다른 것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두 가지의 다른 전승으로서 참고되자 일본사와의 비교 고증이 귀찮은 문제가 되어 온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현행 『삼국사기』의 「백제본기」는 『백제본기』의 흐름을 수용하지만 당년칭원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523년을 원년으로 하고 있다. 치세 마지막 해에 3년의 공위를 성명왕대로 엮어 넣는지 아닌지에 따라 3년의 어긋남이 위로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두 계통의 왕대력을 어딘가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오차의 청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백제의 왕력은 동성왕, 무령왕, 성명왕으로 계승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동성왕의 치세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동성왕 치세를 23년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삼국유사』 왕력은 “26년 다스렸다(理二十六年)”라고 하고 있다. 즉 『삼국유사』에서는 동성왕의 치세가 3년간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3년은 여기서 연표 상 청산되게 되고 그로부터 이상은 두 흐름이 일치한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했다. 덧붙여 말하면 위덕왕 이후 백제의 왕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룬다.

2. 공위 문제에 대해서

현 『일본서기』 이전의 「혹본」에는 계체의 봉어를 534년 갑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본서기』 찬자가 『백제본기』를 따라 531년 신해로 개정했으므로 봉어 후에 3년의 공위가 생긴 것이다(『일본서기』는 형식적으로는 532년~533년을 공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31년 신해 2월 봉어로부터 선화 즉위의 534년 갑인 정월에 이르기까지 만 3년의 공위이다). 이 공위가 발생한 것은 계체의 봉년만을 개정하고 安閑 이하의 기년을 「혹본」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안한 이하 선화, 흠명으로 이어지는 그 후의 황대 기년은 원래의 「혹본」 그대로 현 『일본서기』에 채용되어 있는 것이다. 계체의 사실적 봉년은 후론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계 사서와의 비교로부터 보면 계체 봉어는 처음에는 성명왕 8년에 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성명 8년이 백제의 왕력 상에서 성왕 흥거 후의 공위를 취급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 갑인에서 신해로 이동하고 그것에 계체 봉년이 끌려온 결과가 되었다. 『일본서기』 찬자는 이처럼 『백제본기』를 이용하면서 “뒷날 감교자는 이것을 알라(後勘校者知之也)”고 주석하여 3년 공위의 모순도 그대로 버려두고 스스로는 충분한 뒤처리를 하지 않고 남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혹본」의 형태로 복구해서 다음대인 「안한기」를 계속 읽어 가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즉 “(即位前紀)25년 봄 2월 辛丑朔 丁未, 男大迹天皇이 大兄을 세워 천황으로 삼았다. 그날 男大迹天皇이 봉어했다(廿五年春二月辛丑朔丁未, 男大迹天皇立大兄爲天皇, 即日男大迹天皇崩)”, “원년(갑인 534) 봄 정월, 大倭國勾金橋로 천도했다. 이로 인하여 궁의 이름을 삼았다. 운운(元年春正月, 遷都于大倭國勾金橋, 因爲宮號. 云云)”이라고 적혀 있는 25년은 갑인에서 신해로 개정했기 때문에 고쳐 써진 부분이므로 이것을 원래의 28년(갑인)으로 하면, 그리고 또한 원년 봄 정월(공위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대의 원년을 정월로 시작한다고 한 것이다)을 2월이라고 하면 별도의 모순 없이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위를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가 사실적인 문제로서 취급

했다. 특히 히라코 다쿠레이(平子鐸嶺)씨의 「계체 이하 三皇紀의 착간을 변증한다」(『사학잡지』16-6)와⁷⁾ 기다 사다키치(喜田貞吉) 박사의 「계체천황 이하 세 천황의 황위 계승에 관한 의문」(『역사지리』 제51권)은⁸⁾ 문제를 깊게 검토한 대표적인 논문이다. 전자는 「계체기」~「흠명기」기년을 크게 개조하고, 후자는 그 사이에 흠명과 안한, 선화의 양조가 병립한 사실을 상정한 것이다. 또한 전후의 일부 역사가는 내란을 유행 테마로 해서 신해의 변, 즉 “계체천황 25년인 신해에 황실 내에 어떠한 중대한 사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다(喜田)의 주장으로부터 내란 시대의 의의를 논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공위는 찬자가 책상 위에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위에 쌓아 올려진 여러 가지 탁월한 견해도 그 추론의 묘미에 석별의 정을 애석해 하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히라코(平子)씨의 주장은 『法王帝說』과 『本元興寺伽藍緣起』를 이용하여 안한과 선화 양조를 계체의 치세로 보내서 신해년에 봉어한 것은 선화천황 및 그 황자일 것이다 라고 했다. 기다 박사는 히라코씨의 편주의의를 비판하면서 계체의 봉년은 신해이고 崩日에 다음의 천황 안한을 세운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신해에 “황실 내에 어떠한 중대한 사변”이 있어 그 때문에 안한천황의 즉위는 즉시 실현되지 못하고 사이에 2년의 공위 기간을 두고 갑인년에 이르러 겨우 실현되었다. 또한 신해년에 흠명천황이 즉위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히라코의 주장을 인정해서 불교의 공식 전래를 흠명천황 7년인 戊午라고 하고 나아가 이 무오년에 하나의 신해석을 더했다. 『三國佛法傳通緣起』에 인용된 『新羅學生大安寺審祥大德記』에 “檜隅廬入野宮御宇宣化天皇即位歲次戊午年十二月十二日從百濟國佛法傳來”라고 적혀 있는 것에 주목하여 안한천황을 잇는 선화천황의 치세와 흠명조와의 병존을 추정했다. 요컨대 양 조 분립

7) [역자 주] 平子鐸嶺, 1905, 「繼體以下三皇紀の錯簡を辨ず」, 『史學雜誌』 16-6.

8) [역자 주] 喜田貞吉, 1928, 「繼體天皇以下三天皇皇位繼承に關する疑問」, 『歴史地理』51.

의 시대를 상정한 것이다.

사카모토 다로(板本太郎) 박사는 「계체기의 사료비판」(『일본고대사의 기초적 연구』 상에 수록)에서⁹⁾ “나는 매우 모자란 생각에서 이 경우 처음에는 계체천황의 갑인 봉어를 받아들여 안한천황의 즉위를 갑인년이라고 보았는데, 이후 「계체기」가 3년 끌어올려졌지만 「안한기」 쪽은 그것을 따라 수정을 가할 만큼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연대기를 원래 그대로 남겼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즉위 전기만은 수정해서 신해에 봉어했고 즉위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즉위해서도 연대기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한기」 그 자체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모순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정도의 모순은 『일본서기』에는 자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놀랄 것은 아닐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일본서기』의 편자는 계체천황의 치세를 일단 28년 갑인까지라고 인정하면서 『백제본기』를 보고 갑작스럽게 25년 신해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한 것을 한 것은 어째서였을까. 그 사정은 알 턱이 없지만 적어도 편자가 스스로 정리한 연대기에 자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만약 확고한 사료가 있어서 정리한 연대기라면 『백제본기』 등을 보고 수정할 필요는 털끝만큼도 없을 것이다. 그 『백제본기』라는 것도 ‘또한 듣기로 일본천황 및 태자가 다 봉어하고 흥거했다(又聞, 日本天皇及太子俱崩薨)’라고 하는 것이므로 듣고 전한 것일 터인데다가 그 천황과 태자, 황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모두 봉어하고 흥거했다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사건이기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우리 천황의 봉년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미덥지 않은 내용인 것이다. 그 미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일단 정했던 연대기를 수정했다고 하는 것이 편자의 『백제본기』 존중주의에 따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원래의 연대기가 그 이상으로 미덥지 않게 느껴졌음에 틀림없는 것이다”(242~243쪽)라고 논하고 있는 것은 온건하면서 또한 타당한 견해이다. 또한 그는 몇개의 신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즈노 유우(水野祐)씨는 『일본서기』의 공위에 특별한 의의를 인정하고

9) [역자 주] 板本太郎, 1964, 「繼體紀の史料批判」,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

이외의 경우 등을 참고해서 太一·三皇·五帝설로부터 완전히 관념적으로 공위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신학설을 발표하고 있지만(『증정 일본고대왕조사론 서설』 「서기공위고」)¹⁰⁾ 나는 그것에 찬동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242쪽)라고 논하고 있다. 요컨대 그가 공위 문제를 황대사의 편찬 과정 상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내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전 비판의 기본적 작업이기도 하다.

계체 봉년의 문제는 「흠명기」의 기년과도 관계되어 온 것이지만 그것은 「흠명기」 불교 전래의 연차에 관한 논고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생략해 둔다.

그렇다면 계체가 봉어한 실제 연대는 언제일까. 현 「계체기」 봉년의 찬술 사정이 상술한 대로라고 한다면 이전의 「계체기」라고도 할만한 「혹본」의 연대기는 적어도 『백제본기』에 의한 혼란이 있기 이전의 전승이다. 또한 그것은 일본 쪽의 무언가의 사료에 따라 정리되고 있던 황대력이고 또한 한편으로 그 전승은 성명왕의 마지막 해를 557년 정축(즉 3년 늦은 것이다)이라고 하는 백제 쪽의 다른 전승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갑인 봉어가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현 「계체기」의 신해설보다도 「혹본」의 사실적 신뢰도가 좀 더 높은 것을 인정하고 싶다. 물론 『古事記』 분주의 “정미년 4월 9일에 봉어했다(丁未年四月九日崩也)”가 문제가 되지만 이 분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뢰도로 말하면 「혹본」의 갑인설이 좀 더 상위를 접하는 것이다. 일본 쪽의 전승도 계체 즈음이 되면 즉위와 봉어에 관해서는 제법 신뢰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지금 사료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일단 채택한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문제까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체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는 일본천황의 봉어뿐만 아니라 “이해 신해 3월 …… 이달에 고려가 그 왕 안을 시해했다(大歲辛亥三

10) [역자 주] 水野祐, 1954, 『(增訂)日本古代王朝史論序說』, 小宮山書店.

月……是月，高麗弑其王安)”라고 고구려의 왕력도 언급하고 있다. 이 고구려왕 안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안장왕이고 諱는 興인 왕에 해당한다. 「고구려본기」에는 “13년(531년 신해) 여름 5월에 왕이 흥거했다. 안장왕이라 불렀다(十三年夏五月，王薨，號安臧王)”라고 적혀 있다. 즉 신해 흥거에서 위의 『백제본기』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그 왕 안을 시해했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梁書』 「諸夷傳」 고구려 조에 “(普通)7년 안이 졸했다. 아들 연이 즉위했다. 사신을 보내 貢獻했다. 조서를 내려 연에게 작위를 잇게 했다(七年安卒，子延立，遣使貢獻，詔以延襲爵)”라고 적혀 있는 점에서 보통 7년은 526년 丙午이기 때문에 신해년보다 5년 앞선다. 또한 『魏書』 「고구려전」에는 “안이 죽었다. 아들 연이 즉위했다. 출제가 초기에 조서를 내려 연에게 사지절산기……고구려왕을 가수했다. 운운(安死，子延立，出帝初詔加延使持節散騎……高句麗王)”이라고 적혀 있다. 출제는 북위 왕조 최후의 孝靜帝 修를 가리키는데 532년 壬子에 즉위했고 534년 甲寅 12월에 폐위되었다. 출제의 초기라고만 기록하고 정확한 연차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왕이 흥거하고 즉위한 연차는 명확하지 않다. 앞에서 든 『양서』의 기사를 잘못이라고 해도 중국의 사적에서는 고구려왕 안의 흥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안장왕대의 기사는 『양서』, 『위서』, 『通鑑』에서의 인용문 및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의 생략 기사를 빼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간단한 즉위와 흥거의 기사뿐이다. 자국의 사료가 매우 결여되어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고구려본기」의 안장왕 흥년이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의 전승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백제 계통의 사적을 따라 찬술한 것일 듯 하고 독립된 양국 사료의 일치로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백제본기』의 전승이 가장 유력한 사료로 생각되고 있던 것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계체 봉년의 문제가 이상과 같다고 한다면 「계체기」를 읽어 가는 데에 고증의 하나의 단서를 얻게 된다. 즉 『백제본기』를 사료로 한 부분의 한일 관계의 기사는 연차적으로 3년 끌어내려서 생각해야할 것

이다. 그것은 전술한 금관국 멸망의 연차를 3년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Ⅲ. 近江毛野臣의 가라 경영

1. 近江毛野臣의 가라 경영의 발단 기사(21년기) 近江毛野臣의 남가라 경영 기사는

C1 21년 여름 6월 임진삭 갑오, 近江毛野臣이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 격파된 남가라와 탁기탄을 부흥하여 임나에 합하려 했다. C2 이에(於是) 築紫國造 磐井이 반역을 몰래 모의했다. 운운(廿一年夏六月壬辰朔甲午, 近江毛野臣率衆六萬, 欲往任那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已吞而合任那, 於是築紫國造磐井陰謀叛逆, 云云).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발단으로 해서 그것에 이어지는 23년기와 24년기에 걸쳐서(C3~C9)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발단의 기사 안에서 최초로 문제가 되는 것은 近江毛野臣의 가라 경영이 築紫國造 磐井의 반란과 관계 지어져 기재되고 있는 것이지만 문장의 형식으로부터 말해서 “이에(於是) 축자국조 磐井이 운운”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후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築紫國造 磐井의 반란은 『고사기』에도 “이 치세에 쓰紫君 石井이 大命을 따르지 않고 예의 없던 적이 많았다. 物部荒甲之 大連과 大伴之金村連 두 사람을 보내서 石井을 죽이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한 『고사기』에서는 이것이 계체단에서의 내용이 있는 유일한 사건으로 『고사기』에는 한국 관계의 전승은 전혀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서기』로 오면 近江毛野臣의 가라 파견과 관련시켜서

C2 이에(於是) 築紫國造 磐井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시 일을 미뤄 해가 지나갔다. 일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틈이 있기를 엿보았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이 있는 곳에 보내서 毛野臣의 군대를 막으라고 권했다. 이에 磐井이 火와 豊 두 國을 掩據해서 사신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밖으로는 해로에서 맞아 싸워서 고려와 백제, 신라, 임나 등의 國이 해마다 보내는 조공선을 불러들이고, 안으로는 임나에 보내는 毛野臣의 군대를 막았으며, 유언비어를 퍼뜨려 말하기를 “지금 사신 놈은 옛적에는 나와 동반해서 어깨와 팔꿈치를 부딪쳐 가면서 같은 그릇으로 같이 먹었다. 어찌 갑자기 사신이 되어 나로 하여금 너의 앞에 엎드려 빌게 하는가.” 드디어 싸워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여 스스로 뽐냈다. 이로 인해 毛野臣이 바로 방해받아서 중도에 체류했다. 운운.

이라고 둘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일본서기』 찬자가 작문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라 경영과 磐井의 반란이 관계가 있다고 추단한 찬자 스스로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두 사건의 역사적 이해에서 이와 같은 추단의 타당성 내지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찬자의 작문을 전부 비역사적인 것으로 해서 한걸음에 부정하는 것을 피하고 일단 그러한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만큼의 수고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당시 北九州의 호족이 반도와 교역을 행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고 또한 특히 磐井의 묘라고 전해지는 고분의 석인과 석마의 부류가 반도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하는 논자가 있는 것이나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九州의 고분문화가 한반도¹¹⁾와의 교류의 정도가 높은 점에서 최근 고고학자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부터 보아도 이 방면의 호족이 한국과 정치적 내지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

11) [역자 주] 원문은 ‘朝鮮半島’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반도’로 번역하였다.

다. 단순히 九州에 한정되지 않아서 吉備씨도 紀씨도 세력을 떨친 고대 호족은 모두 한국 경영의 종사자였다. 특히 大和 조정 내에 세력을 떨친 大伴씨나 蘇我씨 등은 각각의 시대 대륙 경영의 추진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築紫의 國造 磐井이 신라와 임나 등의 조공선을 불러들여서 大和 측의 가라 경영에 대항했다고 하는 『일본서기』의 견해는 반드시 과녁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적어도 磐井과 같은 존재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던 것이 역사의 진상일 것이다. 반도로의 루트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말할 것 없이 권세 신장으로의 길이고 세력이 강한 씨족이 하나같이 다투어 바라는 바였다. 『일본서기』의 견해는 大和 조정의 외정에 따른 부담에 견디지 못한 지방 호족의 반항이라고 하는 전후적 유행의 견해보다도 고대적 사실에 좀 더 접근한 견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한 『일본서기』의 붓끝은 기세가 남았는지 磐井 토벌의 조칙을 길게 작문하고 있다(가을 8월 조). 그 구문이 중국 고전, 특히 『예문유취』로부터 문장을 빌려 글을 꾸미고 있는 것은 고지마 노리유키씨가 그 저작 『상대 일본문학과 중국문학, 上』에서 상세히 고찰하고 있는 대로이다.

(「계체기」21년 가을 8월 辛卯朔의 조서)

咨(f)大連, 惟茲磐井弗率, 汝徂征, 物部麤鹿火大連再拜言, 嗟(h)夫磐井西戎之姦猾, 負川阻而不庭, (j)憑山峻(i)而稱亂, (f2)敗德反道, 侮嫚自賢, (g)在昔道臣, 爰及室屋, 助帝而討, 拯民塗炭, 彼此一時, 唯天所贊, 臣恒所重, 能不恭伐, 詔曰, (a)良將之軍也, 施恩推惠, 恕己治人, 攻如河決, 戰如風發, 重詔曰, (d)大將民之司命, 社稷存亡, 於是乎在, (e)勗哉, 恭行天罰, 天皇親操斧鉞, 授大連曰, ◎長門以東朕制之, 築紫以西汝制之, 專行賞罰, 勿煩頻奏.

(『藝文類聚』 59, 武部, 將帥)

a 黃石公三略

- b 淮南子
- c 漢書
- d 抱朴子
- (『藝文類聚』 59, 武部, 戰伐)
- e 尚書
- f 尚書
- g 魏文帝於黎陽作諸
- h 魏楊脩出征賦
- i 晉陸士龍南征賦
- j 晉張載平吳頌

요컨대 『예문유취』를 참고한 「계체기」의 문장 구성 순서는 f1, h, j, I, f2, g, (a), (d), e, (b), (c)가 되고 게다가 그 중에서 將帥¹²⁾조의 어구(테두리로 둘러싼)와 그것에 이어지는 戰伐조의 어구를 교차시킨다. 이것은 이 모두가 전거로 든 여러 서명의 원전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그것에는 『예문유취』 무부를 따른 술작자의 ‘엮어 합치기’라는 문학 기법이 보인다 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388~389쪽). 이들 빌려온 문장은 현대의 일부 역사가가 맑스와 앵겔스의 저술로부터 어구를 즐겨 인용하는 것과 유사한 집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毛野臣의 가라 경영과 磐井의 반란은 본래 별도의 전승이었으나 『일본서기』 찬자가 상술한 것과 같은 견해를 토대로 양자를 결합시키고 ‘於是’라고 해서 C1과 C2를 관련 있는 연속된 일처럼 서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의 近江毛野臣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전승은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을까. 이 近江臣의 동족으로 추정되는 자로 近江臣滿(滿)나 小德近江脚身臣飯蓋가 있다. 즉 滿은 「崇峻紀」 2년조에 東山道에 파견되어 蝦夷의 국경을 관찰하게 했다 라고 적혀 있고, 또한 飯蓋는 「推古紀」 31년조에 보이는 임나 부흥을 위해 신라 토벌의 논의가 일어났을 때 부장군의 한 사람에 더해지고 있다. 近江씨는 蝦夷 경영과 반도의 군사에 모두 관계가 깊은 일족이었다. 당시의 동북과

12) [역자 주] 원문은 ‘將師’이다. ‘將帥’의 오키이므로 수정했다.

대륙으로의 양면 경영의 추진에 대해서는 옛 논문 「荒田別과 田道の 전승」(『조선학보』 제31집)¹³⁾에서 논고한 바 있다. 近江씨의 경우도 또한 그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近江毛野臣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국의 경영을 연상시키는 것과 함께 그가 가라 경영에 종사한 것은 이 일족의 선조의 이야기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전승이다. 推古朝의 신라 정벌은 불발로 끝났지만 이 일족이 참가하게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그들 일족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고사기』 孝元단에 建内宿禰의 아들 波多八代宿禰가 淡海臣의 族祖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이 점에서 주의할 만한 족조 전설이다. 한국 경영을 대표하는 전설적 영웅 建内宿禰를 선조로 하는 계보에 연결되는 여러 씨는 葛城襲津彦을 시작으로 紀, 許勢, 的, 蘇我 등 각각의 시대 한국 경영에 종사한 대표적 존재이고 近江臣도 그러한 계보에 편입되기에 충분한 전승과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보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보가 만들어진 것에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近江毛野臣이 가라를 경영한 발단을 말하는 21년의 기사 가운데 그 연차의 문제는 뒤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서두에 “신라에 격파된 남가라와 탁, 기탄을 부흥해 세워 임나에 합하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남가라 등이 신라에 망한 것은 어느 때의 일인가. 『雄略紀』 이후 신빙도가 높은 기사를 살펴 보아도 그럴법한 어떠한 기사도 없다. 따라서 “신라에 격파된 남가라 운운”(C1)은 완전히 갑작스럽게 나온 서두이다. 실은 남가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 것이 『계체기』 23년 여름 4월의 是月 조 이하(C4·C5)의 금관(須那羅) 외 3촌의 멸망에 해당하는 것은 후론하는 것과 같지만 『일본서기』 찬자는 한국 쪽 사료에 따른 수나라 4촌이 이른바 남가라인 것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 남가라 멸망 이전에 ‘신라에 격파된 남가라 등의 부흥’을 어째서 여기에 기재한 것일까. 실은 남가라 부흥의 문제는 흠명조의 중심 문제이고 백제 성명왕이 천황의 조를 여러

13) [역자 주] 三品彰英, 1964, 「荒田別·田道の伝承-歸化人と上毛野氏」, 『朝鮮學報』31.

번 말하는 가운데 “삼가 천황이 조칙하신 말을 따라 신라에 꺾어진 國인 남가라와 탁, 기탄 등을 빼앗아 취해서 本貫으로 돌려 속하게 하고 임나로 옮겨 채우게 해서 길이 부형으로 만들어 항상 일본에 조알하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또한 “천황이 칙명해서 남가라와 탁, 기탄을 세우라고 권하셨다 운운”이나 “그(탁순은) 탁과 기탄, 가라와 신라의 국경 언저리에 있어서 매년 공격받았는데도 임나가 능히 구원하지 못했다”(이상 『흠명기』 원년)이나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흠명기』의 이들 기사는 백제 계통의 문헌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가라의 부흥은 흠명조 뿐만이 아니라 敏達朝(『敏達紀』 4년조)를 거쳐 추고조(『추고기』 8·9·10·11년)에 이르기까지의 긴 세월에 걸친 현안이었다. 즉 한국 경영이라고 하면 ‘남가라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말이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정책의 상식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毛野臣이 가라를 경영한 발단을 서술하는 데에 직면해서도 당시의 통념적인 상투어를 가지고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 때문에 남가라 멸망의 실제 연차와 모순을 포함한 기사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 毛野臣의 한반도 경영의 발단기사를 어떠한 단서에서 21년 조에 게재한 것일까. 미루어 생각건대 24년 가을 9월 조(C6)에 “毛野臣이 드디어 久斯牟羅에서 집을 짓고 체류하기를 2년(이하 분주), 다른 책에서 전하기를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간 했수를 연결한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역산해서 21년이라고 하는 연차를 추정했을 것이다. 분주의 다른 책에 전하기를 운운하는 기사로부터 보아도 찬자가 毛野臣의 체류 했수를 문제로 하고 있는 부분 등이 그러한 견해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21년이 일단 지정되자 毛野臣의 외정과 築紫國造 磐井의 반란을 관계 지운 견해로부터 磐井의 사건도 이 연차에 배치된 것이다. 磐井의 반란은 『고사기』의 전승과 같이 계체의 치세에 있었던 일로서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을 뿐이고 연차와 같은 것은 물론 명확하지 않은 전승이었다.

[부기]

신라에 격파되었다고 하는 남가라와 탁, 기탄의 지명 가운데 남가라는 현재의 김해 지방에 있던 옛 國으로 옛적에는 금관국 또는 임나국(협의)으로 불렸다.

탁기탄은 탁과 기탄의 두 지명이라고 하는 견해와 하나의 지명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탁은 졸저 『일본서기 조선관계 기사 고증』 상권(149쪽)에서¹⁴⁾ 해설한 것처럼 경상북도 경산의 옛 이름이다. 己吞(胡屯)의呑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水谷城縣一云買且忽, 十谷縣一云德忽, 原谷縣一云首乙呑, 於支呑一云支谷”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且·呑·頓이 대체로 빌려지고 그 외에 答·沓·多·陀도 통용되고 있다. 즉 지명어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로 tan, ta로 차음되고 원래 뜻으로는 tar, tor 혹은 kor(모두 음락의 뜻)를 표시하는 말일 것이다. 다음으로 己는 khu(크다는 뜻)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기탄은 보통 명사적 지명어미이고 탁기탄으로 나란히 붙여 읽어 ‘탁의 國’, ‘탁의 大邑’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탄이 그러한 의의를 가진 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특정 지명으로서도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아서 거창의 옛 이름 거열(거타), 진주의 옛 이름 거터(『삼국사기』 지리지) 등 유사 지명이 적지 않으므로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당시 신라가 탁 및 남가라와 함께 공략 목표로 한 지역은 우선 낙동강 동쪽 일대의 지구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탄을 거창 혹은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점의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지점인 탁과 남가라가 동시에 신라에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리적 위치로부터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마도 탁을 우선 먼저, 그리고 나서 남가라로 진공했을 것이기 때문에 낙동강 동안 지구에서 금관에 가까운 방면의 요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加羅諸國의 동향

7년부터 10년 조에 걸쳐서 기문과 대사 문제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 「계체기」는 그 후 23년기에 이르기까지 가라 방면의 일에 대해서

14) [역자 주]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 吉川弘文館.

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공백 기간을 두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사실적 공백이 아니라 편찬 과정 때문에 생긴 공백일 것이다. 그러한 공백 기간을 둔 후, 23년과 24년 조에 가라 문제가 매우 복잡한 기사가 되어 다시 전개되고 있다. 『일본서기』 편찬은 이 양 년도 기사의 중심을 近江毛野臣의 가라 경영에서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 여러 사료를 거기에 모아놓고 관계가 있는 연속된 일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만 난해한 부분이 이곳 저곳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도 앞뒤의 연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료를 毛野臣의 경영에 결부시켜서 무리하게 편찬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서 양 년도의 기사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쪼개어 나누어 편찬 이전의 사료의 형태로 복원해서 재출발하는 만큼의 수고가 필요하다. 앞서 C군 기사로 분류한 것은 近江毛野臣과 직접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D군 기사는 편자가 毛野臣에 결부시킨 나머지 가라 관계 기사여서 C군 기사만을 읽어 가면 毛野臣이 관여한 사건이 비교적 용이하게 읽힐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뒤에서 논하는 것으로 하고 고찰의 편의를 위해 D군 기사 쪽부터 먼저 해설해 가자.

D군 기사는 D1에서 D6에 걸쳐 있지만 그 중 우선 D1과 D3, D4를 들어 이 종류의 기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 뒤에 원문을 게재한다.

D1 23년 봄 3월, 백제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일러 말했다. “대저 조공하는 사자가 항상 섬의 굶이진 곳을 피해[바다 가운데 섬이 굶이지고 깎아지른 언덕을 말한다. 세간에서 美佐祢 라고 했다] 매번 바람과 파도에 고생하고 이로 인해 지닌 것이 찢어서 전부 망가져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加羅의 多沙津을 신이 조공하는 津路로 삼아주시길 청합니다.” 이에 押山臣이 청한 것을 아뢰었다. D2 이달에 物部伊勢連父根을 보냈다. 吉士老 등이 百濟王에게 津을 내려주었다. D3 이에 加羅王이 칙사에게 일러 말했다. “이 津은 官家

설치된 때부터 이래로 신이 조공하는 津涉이었습니다. 어찌 갑자기 고쳐서 이웃 나라에게 내려주어 원래 봉해진 바의 법도를 어깁니까.” 칙사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면전에서 내려주기 어렵다 여겨 큰 섬으로 되돌아가서 따로 錄史를 보내서 드디어 扶餘에게 내려주었다. D4 이로 말미암아 加羅가 新羅와 結儻하고 日本에 원망이 생기니, 가라왕이 신라 왕녀에게 장가들어 드디어 자식이 있었다. 신라가 처음에 여자를 보낼 때 아울러 백 명을 보내 여자의 종으로 삼았다. 받아들여서 여러 현에 분산해 배치하고 신라의 衣冠을 착용하게 하였다. 阿利斯等이 그 變服에 화를 내며 사자를 보내 徵還하였다. 신라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는데, 도리어 여자를 돌려받으려 하며 말하였다. “이전에 그대의 청혼을 받아들여 내가 곧 혼인을 허락하였다. 지금 이와 같이 되었으니 왕녀를 돌려주길 청한다.” 가라의 已富利知伽[상세하게는 알 수 없다]가 대답하여 말했다. “짝이 합해져서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식이 있는데, 이를 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드디어 지나는 길에 刀伽와 古跛, 布那牟羅의 3성을 쳐서 빼앗고, 또한 북쪽 경계의 5성을 쳐서 빼앗았다(廿三年春三月.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恒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祜]每苦風波. 因茲濕所賚, 全壞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果賜扶余. 由是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 加羅已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拔刀伽, 古跛, 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봄 3월의 기사(D1)는 백제가 가라국의 다사진을 요구한 것, 이어서 是月 기사(D2)와 於是 기사(D3)는 物部伊勢連父根이 그 처리를 담당 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다사진을 백제가 요구한 사건은 이미 7년부터 10년에 걸쳐서 기재되고 있는 기문과 대사의 영유에 관해 백제와 반파(가라제국의 한 나라)가 다투어 희망한 사건(B군 기사)과 같은 내용의 것임은 한번 읽어 보면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다만 이 23년과 24년의 가사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가라와 임나라고 하는 칭호가 가리키는 실체와 그 의미이다. 즉 가라 및 임나의 칭호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가 있어서 때로는 가라와 임나를 대표하는 특정국의 칭호로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라국과 가라왕으로 적혀있어도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대응시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서기』의 찬자 자신에게도 그 사이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 7년기 이하 반파국의 대사 문제와 23년기 D1·D2의 가라국 다사진 문제에서는 전자의 반파국이 후자의 가라국에 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반파가 가라의 대표자로서 활동해서 그러한 입장에서 반파가 가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 양자가 동일한 것은 이미 일찍이 이마니시(今西) 박사가 「기문반파고(『조선 고사의 연구』 수록)¹⁵⁾라는 논문에서 논증하셨고, 그 후의 다른 여러 학자의 설도 유사한 바이지만[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백제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재」-『일본고전의 연구 上』,¹⁶⁾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일본상대사의 일연구』,¹⁷⁾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임나홍망사』,¹⁸⁾ 가사이 와진(笠井倭人) 「삼국유사 백제왕력과 일본서기」-『조선학보』24] 이해의 편의를 위해 두 기사를 비교하여 요약해 둔다.

15) [역자 주] 今西龍, 1937,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6) [역자 주] 津田左右吉, 1963,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日本古典の研究 上(津田左右吉全集1)』, 岩波書店.

17) [역자 주] 池内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日鮮の交渉と日本書紀』, 近澤書店.

18) [역자 주]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p>7년 6월(B1), 백제가 穗積臣押山(『백제본기』에서 말하기를 委意斯移麻岐彌라고 함)를 통해서 반과국의 기문을 청했다.</p> <p>7년 겨울 11월(B2), 조정이 백제에 기문과 대사를 내려주었다.</p> <p>是月(B3), 반과국이 기문의 땅을 청했다.</p> <p>8년 3월(B4), 반과가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했다.</p> <p>9년 봄 2월(B5), 칙서를 내려 物部連(『백제본기』에서 말하길, 物部至至連이라고 함)을 보냈다.</p> <p>是月(B6), 物部連이 대사강에 이르렀다.</p> <p>9년 여름 4월, 物部連이 반과의 군대에 패해서 문모라로 물러났다.</p> <p>10년 여름 5월(B8), 백제가 物部連을 기문에서 맞이했다.</p> <p>10년 가을 9월(B9), 백제가 기문의 땅을 내려준 것에 사례했다.</p>	<p>23년 봄 3월(D1), 백제왕이, 穗積押山臣을 통해서 가라의 다사진을 청했다.</p> <p>是月(D2), 物部伊勢連父根을 보내서 다사진을 백제에 내려주었다. 가라왕이 이에 반대했다.</p> <p>物部連父根이 큰 섬으로 물러났다. 부여에 진을 내려주었다.</p>
---	---

위의 표와 같은 B와 D 두 기사의 대응은 그 사이의 지명과 인명의 일치율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전체적으로 내용이 동일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자에서는 7년부터 10년에 걸친 사건이라고 하고 또한 매우 상세한 연대기적 전승인 것에 비해, 후자는 23년 봄 3월에 일어난 일로서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었고 또한 매우 전설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좀 더 말하자면 B군 기사의 인명과 지명이 주로 백제식으로 글자를 빌려 쓰고 있고 게다가 2개소에 『백제본기』를 분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아 B군 기사의 대부분이 『백제본기』에 의거해 쓰였다고 추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D1과 D2, D3 기사는 일본 쪽의 전승이었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백제본기』의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전승이고 또한 D2와 D3에서는

모두 가라국과 가라왕의 일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일본서기』 찬자는 반과 문제와 별개의 사건처럼 오인해서 23년 조에 기재했을 것이다. 이 다사진(대사) 문제의 사실적인 연차는 『백제본기』의 연대사적 신빙도로부터 말해서 계체 7년부터 10년(B1→B10)에 걸치는 사건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체 봉년의 이동 결과, 3년만큼 인상되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해설]

己汶·帶沙·多沙津 우선 帶沙와 多沙가 같은 이름인 것은 명확한데, 다른 조선의 옛 지명에서도 多와 帶를 통용하고 있다. 또한 그 비정지가 현재의 섬진강 강어귀의 나루인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다. “하동군은 본래 한다사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이를 따른다. 거느린 현은 셋인데, 성량현은 지금의 금량부곡이고, 악양현은 본래 소다사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이를 따른다. 하읍현은 본래 포촌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자세하게 알 수 없다(河東郡本韓多沙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嶺縣三, 省良縣今金良部曲, 嶽陽縣本小多沙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河邑縣本浦村縣, 景德王改名, 今未詳)”(『삼국사기』 지리지, “광양현(고적) 다사문소(현 동쪽 65리에 있음) [光陽縣(古跡)多沙門所(在縣東六十五里)]”(『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으로 비정된다. 한다사군의 한은 음차로 크다는 뜻이다. 지금 강어귀의 동쪽인 선소리가 배가 정박하는 지점일 것이다. 기문의 지명 고증에 대해서 아유카이(鮎貝)씨는 『신찬성씨록』 右京諸蕃下, 巴汶氏 조에 보이는 巴汶과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개령(옛 이름 甘文)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잡고』7 下, 45쪽 이하),¹⁹⁾ 이마니시 박사의 추정처럼 기문천 즉 섬진강 유역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다사진부터 섬진강의 하류 유역은 가라 지방에서 보면 백제에 대한 방어선으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대이고 이 지구가 가라(반과국)과 백제가 다투어 희망한 땅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쓰다 소키치 박사는 이 D2 기사 of 가라를

19) [역자 주] 鮎貝房之進, 『雜故』7 下,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남가라(금관국)이라고 하는 전제에 입각하여 “다사진은 섬진강 하류의 東岸에 있는 지금의 하동 부근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라왕이 조공하는 나루일 리는 없다. 또한 이때에 物部連은 가라왕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제왕과 면회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큰 섬으로 물러가서 하급 관료를 백제에 보내서 교지를 전하게 했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가라와 일본의 사이에 큰 섬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런 섬은 없다. 따라서 이것도 후세 사람의 구상에서 나온 기사일 것이다. 따라서 가라왕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허구인 것을 알 수 있다 운운”(『津田左右吉全集』 제2권, 219쪽)²⁰⁾이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추론의 정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가라를 남가라라고 해석한 최초의 전제에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그 비판을 다시 비판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다.

物部伊勢連父根·吉土老·大嶋 父根은 9년과 10년의 대사 문제(B5~B9)에서는 物部連과 대응하고 그 행동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物部連은 분주의 『백제본기』에는 物部至至連이라고 적혀있고 父根의 父를 카조라고 혼동하고 있지만, 본래는 至至(치치)라고 읽고 있었을 것이다. 본문에서 物部連이라고 하는 식으로 씨성만을 적은 것은 백제계 문헌에서 인명을 취한 경우에 적는 상투적인 방식이다. 物部伊勢連父根이라고 하는 이름을 物部至至連으로부터 조작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서기』 자신이 두 기사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물은 독립한 사료에 의거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오히려 찬자가 사료에 충실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와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吉土老는 그 이름으로 보아 귀화인 계통 같지만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B7 기사에서는 “物部連 등이 두려워하여 도망쳐 겨우 목숨만 보존하고 문모라에 정박했다[문모라는 섬의 이름이다](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嶋名也])”고 그의 패배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백제계 문헌 같고 한편으로 D2 기사에는 “칙사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면전에서 내려주기 어렵다 여겨 큰 섬으로 되돌아 갔다(勅使

20) [역자 주] 津田左右吉, 『日本古典の研究 下(津田左右吉全集2)』, 岩波書店, 1963.

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라고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쪽의 전승 같다. 두 기사의 대응하는 지명 문모라와 大嶋도 전자가 고유명으로 현재의 창선도의 옛 이름(오늘날의 水山里에 그 이름이 남아 있다-水의 훈 mur 汶의 음 mun이 통용, 山의 훈 moi, 모라 moro 통용)인 것에 대해서 大嶋는 보통 명사 같다. 大嶋라는 이름은 「용략기」 7년 조에도 보여서 吉備上道臣田狹의 子弟君이 신라 토벌에 파견될 때 신라를 치지 않고 “백제가 바친 今來才伎를 大嶋 가운데 모으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는 핑계로 체류하기를 수 개월”을 거쳤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이른바 大嶋는 우리의 한반도 경영군이 주둔하는 요지였던 것 같다. 창선도는 해남도와 경상남도의 서남단과의 사이에 있어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도 가라의 중심 지방보다 서쪽으로 치우치고 섬진강 어귀의 맞은편 언덕에 있어서 백제의 세력권에도 접근하고 있어서 吉備弟君이나 物部連父根의 친백제적인 행동에 적합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과 동시에 그 맞은편 언덕인 다사진을 백제의 연락지로서 백제가 요구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사진 문제의 결말로 “따로 녹사를 보내서 부여에게 내려 주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구다라를 부여라고 적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할 것으로 『일본서기』를 통틀어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용법의 글자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4, 성왕 16년 조(538년 무오)에 “봄에 도읍을 사비-다른 이름은 소부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春移都於泗泚一名所夫里國號南扶余)”라고 보이고, 『삼국유사』 권2, 남부여 조에 “부여군은 백제의 옛 왕도이다. 혹은 소부리군이라고 부른다. 운운(扶余郡者前百濟王都也, 或稱所夫里郡 云云)”이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소부리는 왕도를 의미하는 옛말이고 부여라는 지명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이처럼 성왕이 나라를 남부여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이름은 그 후 국호로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일시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일본서기』가 여기에 한해서 부여라고 적고 있는 것은 성왕대 당시의 사료에 의거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라의 다사진 문제에 下哆喇國守 穗積押山臣이 관여하

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로 미루지만, 다사진의 영유를 둘러싸고 백제 및 일본에 대해서 반격의 태세로 나온 가라국, 즉 반과국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현존하는 한국 사적에는 반과국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모두 우리 「계체기」의 기사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 반과는 한국사에서 말하는 벽진가야(일명 본피)로 오늘날의 경상북도 성주 지방으로 추정된다. 다사진²¹⁾의 영유에 관해서 반과(가라)왕은 가라제국 가운데 대표로서 백제와 다투고 백제에 유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본군에게도 반격하는 입장으로 나온 것이다. 섬진강 어귀로부터 그 유역을 두르고 있는 땅이 가라제국의 백제에 대한 방위선으로서 문제가 된 것은 「계체기」 6년(신묘 512년)에 기재한 것처럼 上哆唎를 시작으로 하는 4현 즉 섬진강의 동서 양쪽 지역이 백제의 영유로 돌아가고 백제가 계속해서 동진 또는 북진해서 가라제국에 손을 대려고 한 정세 하이다. 따라서 백제의 哆唎 지방 영유에 이어서 당연히 일어날만한 사건이며, 「계체기」가 (실은 『백제본기』가) 이 사건을 7년부터 10년(3년 인하)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추단해도 좋을 것이다. 가라제국 가운데 대표국은 금관가라(남가라, 협의의 임나), 반과, 안라, 대가라(고령가야) 등 시대의 정세에 따라 변하고 있다. 금관가라는 후술하는 것처럼 532년에 신라에 투항하는 것이지만 금관국의 신라에 대한 내용의 움직임은 그것보다도 이른 시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위의 다사진 문제의 즈음에는 반과가 가라의 대표국이 되고 있다고 추단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近江毛野臣의 가라 경영이 시작할 즈음에는 안라가 가라제국 가운데 대표로서 친일적인 입장에서 있는 것은 후술하는 것과 같다. 가라제국의 움직임은 『일본서기』의 기사처럼 일본 쪽이나 백제 쪽으로부터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가라제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각각의 시점에서의 정세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과국이 백제나 일본에 대해서 취한 행동도 일본과 신라, 백제의

21) [역자 주] 원문은 ‘沙多津’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다사진’의 오기가 확실하므로 수정했다.

사이에 서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입장을 직접 지키려고 한 것에 다른 아니다.

23년의 D2와 D3 기사의 가라가 반파인 것은 상술한 것과 같지만 이케우치 박사는 이것을 금관가라(남가라)로 해석해서(그 이유는 들고 있지 않지만) “다사진은 그(섬진강의) 강어귀에 가까운 하동읍의 부근 일 것이다. 그런데 가라가 완전히 방면이 다른 낙동강 하류의 김해라고 한다면 다사진 앞에 가라라는 문자를 붙인 것도, 이 진이 가라가 조공하는 나루였다고 하는 것도, 이것을 백제에 준 것에 이의를 제창한 것이 가라왕이었다고 하는 것도 모두, 반드시 잘못이 아니면 안된다”(『일본상대사의 일연구』 247쪽)라고 논하고 있지만 가라를 금관가야라고 하는 독단에 입각해서 박사 스스로의 모순 지적주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3. 가라와 신라의 통혼기사

앞 절의 D1·D2·D3의 기사는 『백제본기』를 사료로 해서 위여진 7년 조 이하의 반파 문제(B군기사)에 해당하는 다른 계통의 전승이고, 또한 毛野臣의 가라 경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실마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D1·D2·D3에 이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가라가 신라와 결당했다 운운(由是, 加羅結儻新羅云云)” 이하의 기사(D4)는 가라왕에 연관된 이야기로서 전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 이 전후의 가라왕을 동일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하에서 고증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곤란하다. 이 단락의 문장 구성에서 보면 ‘由是’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후가 연결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도 별개의 사료를 결합시킨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가라가 신라와 결당하고, 일본에 원망이 생겼다(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까지가 편찬자가 이어나간 문장이고, “가라왕이 신라의 왕녀에게 장가들었다(加羅王娶新羅王女)” 이하는 다른 전승의 내용이다. D2·D3 기사와 D4기사 가운데 보이는 가라왕을 동일인물로 해석한 『일본서기』 편찬자의 주관에 의해 이렇게 전후로 배열된 것이지만 지금 그 내

용을 고증할 때는 원래의 사료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라와 신라의 혼인기사를 일단 독립된 사적의 전승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다음 이 사건이 일본의 한반도 경영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가라와 신라의 통혼 사건은 한국의 문헌에도 보이는 것이다.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9년(522) 봄 3월 조에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청혼하니, 왕이 이찬 比助夫의 누이를 보내주었다(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라고 적혀 있고, 이어서 11년 가을 9월 조에 “왕이 남쪽 경계의 개척한 땅으로 순행을 나가니 가야국왕이 와서 만났다(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라고 양국의 친교가 진척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 신라말의 학자 최치원이 편찬한 「釋順應傳」(『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건치연혁 조에 인용됨)에 大伽倻國의 역사를 대략 기록한 중에 “대가야국 월광태자는 정견의 10세손으로 아버지는 이너왕이라고 하는데 신라에 구혼하여 夷絜 比枝輩의 딸을 맞이하여 태자를 낳았다(大伽倻國月光太子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絜比枝輩之女, 而生太子)”라고 양국이 통혼한 일을 전하고 있다. 신라의 인명인 夷絜 비지배의 夷絜은 伊滄과 같은 말을 다른 글자에서 음을 빌린 것이고 때로는 伊尺滄이라고도 쓰였으며 신라 관위 17등 가운데 제2위의 位號이다. 助(음은 cho)와 枝(음은 chi)는 통하는 음을 빌려 쓴 글자이고 夫(훈은 mar)와 輩(훈은 mari)는 동류의 훈을 빌려 쓴 글자로 해석되므로 비조부와 비지배는 다른 글자로 표현한 같은 이름임이 분명하다. 사료 계통으로서는 전자는 신라 쪽의 전승, 후자는 大伽倻國의 옛 자취인 가야산 해인사에 전해지던 것 같다. 이 통혼은 두 계통의 사료가 같이 전하는 저명한 사실에서 유래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일본서기』의 D3 기사 가운데 가라왕은 大伽倻의 異腦王에 해당하고 신라왕은 법흥왕이며, 또 “드디어 자식이 있었다(遂有兒息)”의 자식은 月光太子에 해당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인명도 비정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여기의 가라왕은 물론 남가라왕도 반과왕(벽진가라왕)일 수도 없다. 오히려 『삼국사기』는 남가라를

금관국, 고령가라를 가야로 기재해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大伽倻은 가야산록의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옛 왕국²²⁾으로 加羅諸國 가운데의 유력국이었다(「신라본기」가 통혼과 친교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법흥왕 9년과 11년은 「계체기」의 16년과 18년에 해당하고 있지만 「계체기」의 연대기를 3년 수정하면 19년과 21년이 된다). 이 양국의 통혼과 친교, 그로부터 이혼과 교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짧은 시일의 일이 아니었지만 『일본서기』는 전설화된 전승을 따라 그것을 일괄해서 23년 조에 다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의 사료가 된 것은 가라 방면으로부터 전해들은 일본 쪽의 것일 듯하고 구체적인 인명도 잃어버려서 신라왕과 가라왕이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법흥왕대에 신라와 大加耶 양국은 친교 관계에 들어갔지만 다음의 진흥왕대에 양자는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일본서기』의 이야기는 뒤에 일어난 신라와 大加耶가 교전한 일까지를 통혼의 이야기에 포함시킨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를 문제로 삼으면 정확한 역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야기의 줄거리는 일단 사실에서 유래한 전승이며 이 점이 『일본서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연차적 모순 때문에 그 전승의 사료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고 오히려 연차가 틀을 벗어난 것에 의해 그 사료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 편찬자는 가라국과 가라왕이라고 하는 막연한 칭호를 동일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료를 꿰어 맞추고 있으므로 『일본서기』의 문장을 간단하게 읽어 나가면 독자도 또한 혼동으로 이끌리고 만다. 毛野臣의 남가라(금관국)의 부흥에서 발단하여 가라(반파가라)의 다사진 문제, 가라(고령가라)와 신라의 통혼이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서기』의 기사가 꿰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라에 대해 구체적 이해가 없으면 『일본서기』의 베이스에 빠지고 만다. 이케우치 박사가 이

22) [역자 주] 원문은 ‘古國王’이다. 오기가 확실하므로 ‘古王國’으로 수정했다.

통혼 문제에 대해서 “『일본서기』에 가라왕이 신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신라본기」의 법흥왕 9년 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즉 김해의 가라가 신라의 속국이 된 것을 의미 한다”(『일본상대사의 일연구』 253쪽)고 서술하신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삼국사기』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금관국(남가라·김해의 가라)와 가야국의 둘을 어찌서 혼동하셨던 것일까가 이상할 정도인데, 아마도 『일본서기』의 毛野臣의 남가라 부흥의 기사가 강하게 의식된 것이 지나쳤던 게 아니었을까. 어찌면 쓰다 박사의 혼동에 동조했기 때문일까. 이마니시 박사는 D1·D2·D3의 다사진 문제의 가라를 반파국(성주)라고 하고 또 D4의 신라와의 통혼 문제의 가라를 대가야(고령가야)라고 판정하셨지만, 또한 양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고령 지역과 성주 지역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을까. 고령 및 성주 지역은 한 나라 즉 반파의 영토로서 이를 별개의 가야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고령 지역은 반파의 제1중심지가 되고 성주는 그 제2중심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파는 대가야(혹은 단순히 가야)의 칭호로서 전해졌기 때문에 고령은 대가야국의 터가 되었고 그 국명은 도리어 성주 지역에 남았던 것이리라”(앞의 논문, 397쪽)고 양국이 동일한 것을 서술하시고 있지만, 씹히는 맛이 나쁜 무리한 해석 같다. 『삼국유사』(오가야조)에도 大伽耶(지금의 고령)과 성산가야(지금의 경산을 벽진이라고 한다)를 별개의 나라로서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통설이기도 해서 가라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 때문에 구태여 둘을 같은 나라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가라왕(고령)과 신라의 통혼과 친교에 뒤따라서 얼마 되지 않아 양국에 불화가 생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사, 특히 “아리사등이 그 變服에 화냈다 운운(阿利斯等嗔其變服云云)”의 문장이 매우 난해하다. 게다가 거기서 아리사등이라고 하는 인명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고증에 곤혹을 더하고 있다. 『集解』는 “살펴보건대 신라의 의복을 바꿔 가라의 의복을 입었다(案變新羅服。服加羅服)”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독해할 수 있을까. 역으로 “신라의 의복을 입은 것(가

라에 오고 나서부터는 가라의 의복을 입어야함에도 불구하고)”에 아리사등이 화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독법이 아닐까. 스에마쓰 박사는 「집해」를 따랐는지 “신라가 처음으로 여자를 보낼 때 100인을 함께 보내서 여자의 종자로 삼았다. 가라는 받아서 여러 현에 나누어 배치하고 신라의 의관을 입게 했다. (그런데 이윽고 종자들이 신라의 의관을 버리고 가라의 옷을 입었으므로)아리사등(가라왕)은 그 의복을 바꾼 것에 화나서 사신을 보내 (종자들을)불러 돌려보냈다”(『임나홍망사』 132쪽)이라고 독해하고 있지만, 이케우치 박사가 “그때 가라에 아리사등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신라왕을 따라 온 100인의 여종이 가라의 여러 현에 퍼뜨려지고 나서 그 여자들이 신라의 의관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화냈다 운운”(앞의 책 254쪽)이라고 독해하고 있는 것에 찬성하고 싶다. 화낸 주체는 아리사등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어떤 입장의 인물인 것일까. 종래 아리사등은 가라왕이라고 막연하게 생각 되어 왔지만 그 이유는 「垂仁紀」 2년 조에 意富[오호]가라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여기에서 부터 “아마도 아리사등은 이 왕의 칭호로서 실명은 아니다”(『通釋』, 2622쪽)라고 하는 추측적 해석이 그대로 통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리사등이라고 하는 이름은 意富加羅의 왕자 이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달기」 12년 조에 “火葦北國 아리사등의 아들 달솔 일라(火葦北國阿利斯登子達率日羅)”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 있다. 阿利斯登의 아들인 달솔 일라는 敏達朝에 한반도 경영을 담당한 지명한 사람으로 달솔이라고 하는 백제의 제2品位를 가진 일본계(파견) 在백제관료이고 그의 品位인 달솔로부터 추측하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아버지인 阿利斯登은 계체와 흙명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었다고 추측해도 좋다. 문제의 阿利斯等이라는 인명을 「수인기」와 같은 전설적인 인명보다도 이 「민달기」의 사실적인, 또한 연차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火葦北國 阿利斯登으로 추측하는 편이 좀 더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케우치 박사의 阿利斯等을 “日羅의 아버지 阿利斯登과 동일인물일 것이다. 즉 阿利斯等은 계체천황 때 우

리의 유력한 관인으로서 가라에 있으면서 가라가 통혼에 의해 신라의 속국이 되고 있는 것을 갈라놓으려고 했을 것이다”(앞의 책 254쪽)라고 하는 독해가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가라는 고령가야로 남가라라고 하는 그의 견해를 바로잡고 나서의 일이다. 「흠명기」 2년 조에 따르면 안라의 일본부와 함께 따로 가라(고령)에도 일본군이 있었는데 阿利斯等은 이 가라의 일본군에 대한 지도자적 존재였을 것이다. 또한 「계체기」 24년 가을 9월 조의 “이에 아리사등이 운운(於是阿利斯等 云云)”(D5)에 연결시켜 읽으면 당시 阿利斯等은 웅천 방면에 있던 近江毛野臣과 현지에서의 정책에서 의견을 달리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던 것 같다. 그러한 전후의 사정으로부터 추측하면 阿利斯等은 가라(고령)와 신라의 통혼에 의해 신라의 침략 완화를 계획하여 평화적 방위의 계획으로 나왔지만 신라의 진공을 막지 못했으므로 결국 그 화친책은 깨어졌을 것이다.

가라왕비의 이혼문제 때문에 가라의 已富利知伽가 노하여 刀伽와 古跛, 布那牟羅의 3성 및 북쪽 경계의 5성을 쳐서 빼앗았다고 한다.²³⁾ 이 기부리지가와 阿利斯等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부리지가의 기부리는 大邑의 뜻, 지가는 군장의 뜻이기 때문에 ‘가라의 大邑君’ 즉 가라왕의 칭호로 추정된다. 또한 도가 이하의 3성 및 북쪽 경계의 5성의 추측 지명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라(고령)와 신라의 항쟁 지역, 즉 낙동강 중류 동쪽 지역의 여러 성으로 탁순(대구)으로부터 창녕(比自垓=比子伐) 방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아유카이씨가 3성 가운데의 포나모라를 비자벌로 추측하고 있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잡고』7 下, 79쪽) 하지만 이 3성 및 5성은 「계체기」 24년 가을 9월의 D5 기사의 구례모라성이나 포나모라 이하의 5성과 같은 지역으로 신라가 비자벌을 완전 영유한 555년 즈음까지 피아의 쟁탈이 반복된 교전 지구였던

23) “遂於所經拔刀伽·古跛·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이라고 하는 한 문장의 주격은 신라왕인가 가라의 기부리지가인가. 누구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후술하는 23년 조의 D4 기사와 아울러 생각하면 신라왕이 공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만 문맥으로 보자면 문법적으로는 기부리지가가 주격이다. 무엇이 되었건 난해한 문장이다.

것이다.

4. 近江毛野臣의 경영 그 첫 번째(안라회의)

23년 봄 3월의 앞서 기술한 D1·D2·D3·D4에 이어서 또 “이달에, 近江毛野臣을 보냈다 운운(是月, 遣近江毛野臣 云云)”(C3)이라고 ‘是月’ 형식으로 시작하는 기사를 이어붙이고 있는데, 이 3월 조에는 D2의 ‘是月’ 기사, D4의 ‘於是’ 기사, D4의 ‘由是’ 기사가 있고, 여기에 다시 ‘是月’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실로 이 3월 조에는 여러 가지 사료가 모아져 있는 것이다. 우선 원문을 살펴보자.

C3 이달에 近江毛野臣을 안라에 사신으로 보내고 신라에 勅을 내려 南加羅와 喙, 己吞을 ‘再建’할 것을 권했다. 백제가 將軍君尹貴와 麻那, 甲背, 麻鹵 등을 보내 안라에 가서 참여하여 勅을 듣게 했다. 신라가 蕃國의 관가를 격파한 일을 두려워하여 大人을 보내지 않고 夫智奈麻禮와 奚奈麻禮 등을 보내 안라에 가서 참여하여 勅을 듣게 했다. 이 때 안라가 새로 高堂을 짓고 칙사를 인도하여 오르게 했다. 國主가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나라 안의 大人으로 참여하여 당에 오르는 한두 사람이었다. 백제의 사신 將軍君 등은 당의 아래에 있었다. 무릇 수개월 동안 여러 번 당 위에서 계책을 도모했다. 將軍君 등이 뜰에 있는 것을 원망하였다(是月, 遣近江毛野臣使于安羅, 勅勸新羅更建南加羅·喙·己吞.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往赴安羅式聽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在於堂下, 凡數月. 再三謨謀乎堂上, 將軍君等恨在庭焉).

한편 21년 여름 6월 조에 남가라 등의 부흥을 近江毛野臣에게 명했다고 하는 발단 기사에 이어서 築紫國造 磐井의 반란을 기록한 후, 그

것에 이어지는 23년 봄 3월 조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毛野臣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가라 문제의 기사(D1·D2·D3)가 이어 붙여져 毛野臣의 기사는 중단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 ‘是月’ 기사에 이르러 처음으로 毛野臣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게 된다. 따라서 毛野臣에 관한 기사로서는 21년의 발단 기사(C1)에서 이 ‘是月’ 기사로 연결시켜 읽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의 발단 기사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찬자의 작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료로서는 이 ‘是月’ 기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 보이는 인명이나 백제 입장의 설명 등에서 추측하여 그 내용은 백제 계통 사료를 따른 것으로 판단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毛野臣의 가라 경영이 안라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 것은 이 기사가 말하는 것으로 명료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사정에서였을까. 가라제국(광의의 임나)은 신라와 백제 및 일본의 사이에 있어서 아직 신라와 백제 두 왕국과 같은 통일된 왕국은 되지 못했고 소읍락국의 불안정한 연합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가라제국에 4세기 후엽 이래 지배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일본이었지만 그 후 신라와 백제가 동서로부터 잠식을 획책했고 특히 6세기에 들어오자 그것이 격화되어 온 것이다. 가라제국 가운데 유력한 대표국으로서는 금관가라(남가라), 대가라(고령가라), 반파가라(벽진가라), 안라가라(아시랑국·함안지방) 등이 있어서 이들 나라들은 일본과 신라, 백제의 세 나라 사이에 있어서 화친과 전쟁이라는 각각의 대책을 가지고 자존의 길을 도모한 것이다. 毛野臣의 경영 전후의 대세를 말하면 얼마 되지 않아 신라에 병합될 금관국은 당시 이미 신라와의 내용 관계가 생겨 있었다고 추측되며, 반파가라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백제와 일본에 대해서 반격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가라에는 일본계인 阿利斯等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신라와의 화친책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이들 여러 나라의 동향으로 보면 毛野臣이 그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안라 외에는 없다. 이 안라는 「광개토왕비」에 “안라인수병 운운(安羅人戍兵 云云)”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서는 매우 오래된 역사

를 가졌고, 「흠명기」에 따르면 당시에도 유력한 협력자로서 최후의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인연이 깊은 나라였다. 예를 들면 「흠명기」 5년 조에 “대저 임나(광의의 任那諸國)는 안라를 형으로 여겨 오직 그 뜻에 따른다. 안라인은 일본부를 아버지라고 해서 오직 그 뜻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毛野臣의 가라 경영 거점이 안라에 두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毛野臣은 안라에 이르러 신라와 백제 양국 사자를 불러 모아 가라 부흥의 조칙을 전한 것인데, 그때의 상황을 “이에 안라가 새로이 高堂을 지어 칙사를 이끌고 올라갔다. 國主가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국내의 大人이 참여하여 당에 올라간 자가 한두 사람이었다. 백제의 사신 將軍君 등이 당의 아래에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안라국주가 우위에 선 외교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을 이용해서 가라 지배를 다투어 희망한 백제에게 있어서는 “(백제의)將軍君 등이 마당에 있는 것을 한스러워했다”고 적힌 대로이다. 이 안라회의 때에 신라에 대해서 “칙서를 내려 신라에게 권하여 다시 남가라와 탁기탄을 세우게 했다. …… 신라가 蕃國의 관가를 깨뜨린 것을 두려워하여 大人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남가라의 멸망(「계체기」 23년 조 여름 4월의 是月 기사) 뒤의 일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두 기사는 앞뒤를 역전시켜야 할 것인데 3월과 4월의 是月 기사이기 때문에 동시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백제의 반발은 25년 조 분주에 인용된 『백제본기』에 “군사를 나아가게 해서 안라에 이르러 乞毛城에 군영을 쳤다”라고 적힌 것에서도 엿보인다. 이 기사 가운데 보이는 신라인과 백제인의 이름 하나 하나를 고증할만한 사료적 단서는 결여되어 있지만 신라의 사자가 奈麻禮(奈麻·奈末) 즉 신라 17등 가운데 제11위의 관위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大人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 대로이다. 이것에 비해 백제의 사자인 마로와 마나, 윤귀는 「흠명기」에 중좌평 마로와 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라고 적혀 있는 것과 동일 인물로 모두 제1위의 좌평군에 속하는 고위자였다.

『일본서기』는 안라회의에 이어서 다음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D5 여름 4월 壬午朔 戊子에 임나왕 己能末多干岐가 來朝 하였다[己能末多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阿利斯等일 것이다]. 大伴大連金村에 아뢰어 말하였다. “무릇 바다 밖의 諸蕃은 胎中天皇이 內官家를 설치한 이래로 본래의 토지를 버리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그 땅을 봉해준 것은 실로 마땅합니다. 지금 신라가 원래 내려주어 봉한 바의 한계를 위배하고 자주 경계를 넘어 와서 침략합니다. 천황께 아뢰어 신의 나라를 救助해 줄 것을 청합니다. 大伴大連이 요청을 따라 주청하여 아뢰었다(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置內官家不棄本土, 因封其地良有以也, 今新羅違元所賜封限數越境以來侵, 請奏天皇救助臣國, 大伴大連依乞奏聞).

즉 임나왕 己能末多干岐의 來朝이다. 여기서 임나왕이라고 적고 있는 임나는 가라제국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임나 즉 남가라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나로 총칭하는 왕이 있었을 리는 없다. 분주에서 “기능말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阿利斯等일 것이다”라고 적혀 있지만 “아마도”라고 적혀 있는 표현으로 보아 그것이 원래의 주석이 아니고 훗날의 사람이 주석을 단 느낌이 강하다. 덧붙여 말하면 가와무라 히데네(河村秀根)는 사사로이 쓴 문장을 첨가하고 있다. 阿利斯等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고령가라에 있으며 일을 꾸밀 것을 궁리하고 있던 일본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남가라왕인 임나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조의 문장 가운데 “임나왕 기능말다간기가 來朝했다(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까지는 무언가의 사료에 의한 것이 틀림없지만 “大伴大連金村에게 아뢰어 말했다(啓大伴大連金村曰)” 이하는 『일본서기』 찬자의 작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케우치 박사는 이 문장이 「계체기」 6년 조의 物部麤鹿火의 아내가 한 말이나 「계체기」 23년 조의 가라왕의 말과 매

우 비슷한 것을 지적해서 “관가의 유래를 설명한 이러한 문구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일본서기』 편자의 조작 같기 때문에 기능말다간기의 말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앞의 책, 260쪽)라고 논하고 있는데 동의해도 좋을 것이다.

[해설]

임나왕 기능말다간기를 남가라왕이라고 하면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수록된 『가락국기』에 전하는 제10대 가라국왕인 구형왕의 치세에 해당하고 있다. 구형왕은 正光 2년(521년)에 즉위해서 大通 4년(532년)에 신라에 항복하고 있다. 구형왕은 『삼국유사』 정덕본의 왕력에는 休衡王이라고 적혀 있고, 또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九世孫(始祖首露의)인 仇亥는 혹은 仇次休라고도 한다, 庾信의 曾祖이다(九世孫仇亥, 或云仇次休, 於庾信爲曾祖)”라고 적혀 있어서 구형과 구해, 구차휴의 세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衡과 衝은 글자 모양을 잘못 베낀 것, 구차휴의 次는 s:t 등이 첨가된 음이다. 그 무엇을 취해도 기능(말다)와는 음을 빌린 것, 훈을 빌린 것을 가지고는 같은 이름인 것을 입증할 수 없다(덧붙여 말하면 말다는 ‘宗’ mar 등으로 훈을 빌린 말로 남자의 인명 어미이다). 『일본서기』에는 己能이라고 쓴 異本도 있다. 무라카미 요시오(村上四男) 박사는 “기능말다간기의 己能(기노우)를 己能(이노우)라고 하면 이것은 고령의 이뇌왕이다. 『일본서기』는 금관국왕명과 혼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능말다간기의 己能을 己熊(기노우)라고 하면, 己熊(기노우)은 구형왕의 구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5. 近江毛野臣의 경영 그 두 번째(남가라의 멸망)

위의 임나왕 來朝 기사에 이어서 毛野臣의 제2단계 활동 기사가 이어 붙여져 있다.

C4 이달에 사신을 보내 己能末多干岐를 돌려보내고 아울러 임나에 있는 近江毛野臣에게 명령하여 아뢰는 것을 캐어묻고

서로의 의심을 풀어 화목하게 하라고 했다. C5²⁴⁾ 이에 毛野臣이 熊川에 나아가[어느 책에서는 “나아가기를 …(중략)…上臣(신라)이 4村을 약탈하고[金官과 背伐, 安多, 委陀의 4村이다. 어느 책에서는 “多多羅와 須奈羅, 和多, 費智가 4村이다”라고 했다] 人物을 다 거느려 그 본국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多多羅 등 4村이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是月. 遣使送己能末多干岐并詔在任那近江毛野臣推問所奏, 和解相疑. 於是. 毛野臣次于熊川[一本云, 次于…(中略)…上臣(新羅)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入其本國, 或曰, 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 毛野臣之過也].

‘是月’은 위에 서술한 임나왕 來朝의 4월을 받은 것이므로 『일본서기』에 써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임나왕의 來朝가 毛野臣의 가라 경영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C4 부분의 문장 자체는 『일본서기』 찬자의 작문이고 기사의 구성으로 보면 임나왕 기능말다간기의 來朝 기사(D5)와 毛野臣의 활동 기사(C5)를 연결하는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功能말다간기의 來朝와 毛野臣의 활동이 과연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일본서기』 찬자가 양자를 관련된 것으로서 기사를 찬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 D4와 C5의 사료를 결합시킨 찬자의 견해는 당시 가라 방면의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빗나간 고증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나는 약간의 의문을 남기면서도 그대로 승인해 두기로 한다.

C5 기사는²⁵⁾ 장문이므로 원문의 인용은 생략하지만 대체로 요점은 다음과 같다. 毛野臣은 웅천(다른 책에서 말하는 임나의 구사모라)에 주둔해서 신라와 백제 두 나라를 소집했지만 신라왕 佐利遲는 久遲布

24) [역자 주] 원문에는 분류 기호가 없다. 하지만 논문의 서두에 저자가 사료를 정리한 것을 보면 여기부터 C5가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기호를 추가했다.

25) [역자 주] 원문은 ‘D4’이다. 논문의 서두에 저자가 사료를 정리한 것을 보면 C5의 오기로 여겨지므로 수정했다.

禮(다른 책에서 말하는 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를 보냈고 이어서 上臣 伊叱夫禮智干岐(다른 책에서 말하는 伊叱夫禮知奈末)을 파견했다. 그런데 신라의 상신이 多多羅原에 진을 치고 武威를 보였으므로 毛野臣이 己叱己利城으로 옮겨가 진을 치고 맞섰으나 마침내 상신이 금관 이하 4촌을 공략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기사가 한국 쪽 사료를 따른 것은 지명과 인명 등에 사용된 글자로 보아도 명료하며, 또한 지명과 인명에는 “다른 책에 말하길”이라고 해서 다른 전승을 주석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한국 쪽 문헌이 책 하나에 그치지 않았던 것을 엿보아 알 수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일련의 기사 가운데에도 毛野臣의 僊人인 河內馬飼首御狩에 관한 삽화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일본 쪽 전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로부터 이 C5기사는²⁶⁾ 안팎의 전승을 활용해서 매우 정교하고 또한 성공적인 형태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한국 쪽 문헌을 따른 부분이 사료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것은 거기에 보이는 지명과 인명이 현재의 한국 사적에 의해 고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연차적으로도 충분히 해설할 수 있는 것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毛野臣은 웅천(김해 서남쪽의 웅진) 및 서쪽의 기질거리성 즉 창원 방면에 진을 쳤고, 한편으로 신라왕 좌리지 즉 범흥왕이 파견한 상신 이질부례지간기(이사부)는 부산 부근의 다다라원(다대포)으로 군을 진격시켰는데, 毛野臣은 겁을 먹었는지 적극적으로 진격하지 않았다. 신라군은 금관을 시작으로 4읍 즉 낙동강 어귀의 다다라부터 동안의 중요 거점인 비지(창녕)에 걸친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에 강어귀를 서쪽으로 넘어 배벌 즉 웅천까지도 점령한 것은 毛野臣이 웅천으로부터 기질거리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하면, 일본과 가라제국의 교통의 요진을 신라에 제압당하게 되어 사태가 점점 곤란해졌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금관국의 멸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및 「지리지」에 따르면 범흥왕 19년(532년 임자)의 사건으로 「계체기」 23년(529)과의 사이에 3년의 어긋남이 보이지만 이것

26) [역자 주] 원문은 ‘C4’이다. 문맥상 ‘C5’의 오키로 여겨지므로 수정했다.

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현존 「계체기」의 봉년이 3년 인상되었기 때문에 생긴 착오이고, 이전의 「계체기」라고도 할 수 있는 「或本」의 기년에 근거하면 「신라본기」의 그것과 연차적으로도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남가라 부흥의 군사는 이 532년 이후의 일이 아니면 안 되는데, 금관국 멸망의 사정은 다른 글에서 논한 것처럼 신라의 토벌을 받았다고 하기 보다도 내용에 의한 합방으로 고령가라(대가야)가 신라군과의 격전에 의해 토벌된 것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금관국의 신라에 대한 내용 공작은 합방된 532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본의 남가라에 대한 경영 계획은 반드시 532년이라고 하는 해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

[해설]

熊川·久斯牟羅 웅천(구마나레)은 「웅략기」 21년 조의 백제왕도 久麻那利(충청남도 공주)와는 다른 곳으로 경상남도 웅진(웅천)이고 마산항의 입구 동안에 위치해서 옛적에는 중요한 항구였으며 이조시대에는 왜관이 있었다. 김해(금관가야)는 그 동북방 수 십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 『동국여지승람』(33권) 웅천현 건치연혁 조에 “본래 신라의 웅지현이다. 경덕왕이 웅신이라 고쳐서 의안군의 영현으로 만들었고 고려 현종이 금주에 속하게 했다. 운운(本新羅熊只縣, 景德王改熊神, 爲義安郡領縣, 高麗顯宗屬金州, 云云)이라고 적혀 있다. 구사모라는 경상남도 창원으로 추측되고 옛 이름은 仇史郡·屈自郡으로 불렸다. “창원도호부 [건치연혁] 의창현은 본래 신라의 굴자군이다. 경덕왕이 의안이라 고쳤다. 회원현은 본래 신라 골포현이다. 경덕왕이 합포로 고치고 의안군에 속하게 했다. 고려 현종 때에 의안과 합포를 합쳐서 금주에 속하게 했다. 운운(昌原都護府 [建置沿革] 義昌縣, 本新羅屈自郡, 景德王改義安, 會原縣, 本新羅骨浦縣, 景德王改合浦, 屬義安郡, 高麗顯宗時, 義安合浦屬金州, 云云)”(『동국여지승람』 32권, “백월산은 신라 구사군의 북쪽에 있다[옛적의 굴자군이다. 지금은 의안군이다](白月山在新羅仇史郡之北[古之屈自郡, 今義安郡])”(『삼국유사』 권3, 南白月二聖 條). 구사모라의 모라는 읍락을 의미하는 māur이고 “성을 불러 건모라라고 했다(呼城曰健牟羅)”(『양서』 「신

라전)고 적혀 있는 건모라는 大冚의 뜻. 구사모라는 웅천의 서북 20킬로미터 정도의 지점에 있고 웅천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보아도 좋으며, 따라서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임나 구사모라로 행차했다고 했다(一本云, 次于任那久斯牟羅)”라고 적힌 것도 특별히 다른 설로 볼 필요는 없다.

新羅王佐利遲 신라 23대 법흥왕이다. “휘는 원종이다[책부원구에 성은 모, 이름은 공이라고 했다](諱原宗[冊府元龜, 姓募名恭])”(『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원종에 대해서 양주동씨는 源의 옛 훈 chār를 해당시켜 좌리지를 원종 chār, mārā라고 했고(『고가연구』 70쪽)²⁷⁾,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씨는 좌리지는 법흥왕의 이름 원종 car-c-mar의 car-c이다(『동양학보』 제15권, 193쪽)²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아유카이씨는 “원종의 ‘원’과 방언 ‘좌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책부원구의 ‘모’와 ‘공’과도 모두 아무런 관계도 없다. 따라서 ‘좌리’의 음차 cha-li는 당시 신라 제1등의 중신인 이찬 哲夫의 ‘哲’의 음 chio-li의 전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잡고』7 下, 85쪽)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 앞의 설에 찬성자가 많다.

久遲布禮·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 『삼국사기』가 전하는 居柒夫로 추측된다. 『삼국사기』 「열전」 제4에 居柒夫(或云荒宗)이라고 적혀 있는 인물이다. 이름을 간략하게 독해해서 말하면 宗과 夫는 인명 어미로 mar(purch)를 훈을 빌려 만든 글자이고 居漆과 荒에 대해서 아유카이씨는 “한국어에 지금도 ‘荒’을 kochil이라고 훈을 달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잡고』7 下, 85쪽). 「열전」에 따르면 거칠부는 내물왕의 5세손으로 어릴 적에 고구려에 들어가 惠亮 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수행했고, 귀국 후에는 조정에서 근무했으며 진흥왕대에 가장 크게 활약했다. 그 주된 업적은 진흥왕 6년(545) 乙丑에 조정의 뜻을 받들어 『국사』의 修撰을 담당한 것, 진흥왕 12년 辛未에 장군 여덟 명과 함께 백제군과 연합하여 고구려와 싸워 한강 유역을 점령한 것이다. 훗날

27) [역자 주] 梁柱東, 『古歌研究』, 博文出版社, 1954.

28) [역자 주]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15, 1925.

에 상대등이 되어 군국사무를 自任했고 78세로 죽고 있다. 남방 특히 가라 방면에서의 활약에 대해서 「열전」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칠부의 이름이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東萊郡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삼국사기』 「지리지」)라고 적혀 있는 居漆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면 남한 특히 금관 방면에 관계가 있던 인물일 것 같다. 분주에서 말하는 久禮爾師知와 于奈磨里는 두 사람의 이름이며, 또한 久遲布禮와는 다른 이름이다. 단 신라사에서 비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

上臣伊叱夫禮智干岐 『삼국사기』가 전하는 異斯夫, 或云苔宗(「열전」)에 해당한다. 伊叱夫禮는 이사부이다. 또한 苔宗의 苔는 “苔 is,mæ 藓 is,syŏn”(『訓蒙字會』)라고 적혀 있는 훈 is를 異斯라고 쓴 것이다. 干岐는 경칭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夫禮智干岐와 하나로 관계 지워서 助富利智干 즉 신라 관위의 제1위인 舒弗邯으로 해석해도 좋다(『일본서기』 조선 관계기사 고증 상권 74쪽 참조). 이사부의 가계로 보면 당연한 위계이다. 한편 이사부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열전을 참고로 인용해 둔다.

異斯夫(或云苔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 權謀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 至十三年壬辰爲阿瑟羅州軍主, 謀并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艇,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其人恐懼則降, 眞興王在位十一年太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異斯夫出兵, 擊之取二城, 增築留甲士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大勝.

이사부는 제22대 智證麻立干으로부터 제24대 眞興王의 시대(계체조로부터 흥명조의 시대)에 활약한 인물로 북방에서는 고구려와 교전하고 남방에서는 가야국(고령)을 도벌했으며 바다를 건너 우산국(울릉도)를 평정하고 있다. 가라 방면의 경영에서 毛野臣과 교섭했다고 하는 『일본

서기』의 전승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上臣伊叱夫禮智干岐라고 적혀 있는 上臣은 “上大等(혹은 上臣이라고 한다)은 법흥왕 18년에 처음 두었다(上大等[或云上臣]法興王十八年始置)”(『삼국사기』 「직관지」)라고 적혀 있어 상대등을 부른 칭호이고 『일본서기』가 “신라의 大臣을 上臣이라고 했다”고 分注하고 있는 것도 타당하다. 「신라본기」가 전하는 이사부의 관직은 悉直州 軍主(지증 6년), 阿瑟羅 軍主(지증 13년), 병부령(진흥 2년) 등으로 상대등에 임명된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후배이고 하위자인 거칠부가 진지왕 원년(576)에 상대등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상대등, 즉 상신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伊叱夫禮의 남가라 방면에서의 활동은 「계체기」 23년에 기재되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해설할 것처럼 연차적으로는 3년 인하해서 532년 즉 법흥왕 19년이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라본기」가 상대등의 첫 설치를 법흥왕 18년이라고 하는 것과 저촉되지 않는다. 덧붙여 말해둔다. 分注에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伊叱夫禮知奈末이라고 했다”라고 적혀 있는 奈末은 신라 17등 관위의 제10위 이하이고 가령 17등의 단계가 후세에 성립했다고 해도 그가 奈末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낮은 지위이다.

己叱己利·多多羅原 己叱己利는 앞에서 나온 久斯牟羅와 같은 곳(창원)이고 久斯와 己叱은 음을 빌려온 다른 글자이다. 己利는 “嚮 kōri,ku 達 kōri,k-yu”(『訓蒙字會』)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牟羅(村, 訓은 mār,mour)과 동의어이다.

多多羅는 졸저 『일본서기 조선 관계기사 고증』 踏鞴津의 항목(상권 85쪽)에서 해설한 것처럼 낙동강 어귀 동안의 多大浦(多大里)이다. 이사부가 수천의 병사를 가지고 여기에 진을 친 것에 대해서 毛野臣이 己叱己利 즉 창원 방면에서 대치했다고 하는 포진은 정확히 금관가라를 가운데에 두고 약 50킬로의 간격이다. 또한 毛野臣이 웅천에서 기질기리로 옮겨간 것도 웅천이 다다라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金官·背伐·安多·委陀, 多多羅·須奈羅·費知·和多 이질부레지가 노략질한 4촌에 대해서 분주한 곳은 두 가지의 설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같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4촌은 「敏達紀」 4년 조에 보이는 신라가 대신 바친 임나의 공물에 관한 기사에 보이는 須奈羅 이

하의 4촌, 또한 「추고기」 8년 조에 보이는 임나 부흥 문제의 素奈羅 이
 하의 6촌이 이 「계체기」의 4촌과 동일 개념 아래 일괄되어 있는 임나
 안의 특정 그룹이다. 참고를 위해 표시해 두자.

(「계체기」)		(「민달기」)	(「추고기」)	추측 지명
(A) 金官 背伐 安多	(B) 須那羅	須奈羅	素奈羅	김해 웅천?
委陀	知多 費知 多多羅	和陀 發鬼 多多羅	委陀 費智鬼 多多羅 阿羅羅 南迦羅	창녕 다대포 함안

위의 지명 가운데 須那羅와 素奈羅 등은 須와 素의 음을 빌려서 金의
 훈 soi,so를, 또 奈羅의 음을 빌려서 國의 훈 nara를 나타냈다. 따라서
 須奈羅는 金國의 뜻, 즉 금관국이다. 같은 國은 임나(협의)·남가라·대가
 라 등으로도 불리는 현재의 김해 지역에 있던 작은 왕국이었다.(『일본서
 기 조선 관계기사 고증』 상권 6항 임나국, 같은 책 147항 남가라의 여러
 항 참조) 그런데 「추고기」에는 素奈羅와 南迦羅가 병기되어 있어 언뜻
 보아 중복되고 있는데, 스에마쓰 박사의 소견(『임나홍망사』 194쪽)처럼
 이 경우의 남가라는 소나라 이하 4촌의 총괄적 칭호로 보아야 할 것이
 리라. 다음으로 背伐은 따로 背評에서 해설하는 것처럼 熊川으로 추측해
 도 좋다. 費知는 發鬼·費智鬼로도 글자를 빌려 쓰고 比自怵·非火와 같은
 이름의 다른 글자, 즉 경상남도 창녕의 옛 이름이다(졸저 상권 145항, 比
 自怵의 항 참조). 多多羅는 전술한 다다라원 즉 현재의 다대포이다. 委
 (知·和)陀는 추측 지명을 생각할 수 없지만 아마도 금관 주변의 지역일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장수 이질부례지가 금관 이하의 여러 촌을 공략한 일은 일본의 임나 경영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지만 「계체기」가 이 기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반드시 그 정도로 중대시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일본서기』 찬자가 금관·수나라의 이름이 임나국(협의)의 별명인 것을 눈치 채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달기」 4년에 신라의 사신이 수나라 이하의 임나의 조를 대신 바치고 있는 것이나, 「추고기」 8년의 임나를 부흥시키려는 군사일의 목적지가 역시 그들 지역이었던 것 등에서 보아도 그것이 임나제국을 대표하는 곳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 이외의 잔존 임나제국이 신라의 진격에 의해 전부 멸망한 것은 흠명 23년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대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해도 이 금관 여러 촌의 함락이 아니면 안 된다. 흠명 2년 이후의 임나 문제의 초점이 이 남가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에 두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계체기」의 찬자는 남가라가 금관(수나라) 여러 촌의 별칭인 것을 미루어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近江毛野의 외정을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毛野臣의 패전 결과 금관 즉 남가라가 망한 것이기 때문에 남가라를 다시 일으키는 군사일은 시간적으로 말해서 이 수나라 여러 촌이 패멸한 이후에 속해야 한다. 즉 남가라의 부흥이 흠명조의 중심 과제가 되고 있는 까닭이고 「흠명기」에 남가라 부흥의 조치가 반복되어 제시된 것은 그 때문이지만, 「계체기」의 찬자가 그러한 조치의 이야기를 毛野臣의 외정 조에 문장을 꾸며내는 식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후 모순된 어구가 된 것이다.

6. 近江毛野臣의 실패

23년 조의 가라 경영 기사가 “다다라 등의 4촌이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라고 끝맺고 있는 것처럼 금관국이 신라에 귀속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24년 가을 9월 조 이하에 그 후 毛野臣의 동정을 말하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C6 가을 9월에 任那가 사신을 보내 아뢰어 말했다. “毛野臣이 드디어 久斯牟羅에 집을 짓고 헛되이 세월을 보낸 것이 2년인데 (중략) C7(D6)이에 阿利斯 등이 그가 자질구레한 것을 일삼고 약속한 것에 힘쓰지 않음을 알고 빈번히 조정에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여전히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행적을 상세하게 알게 되어 등 돌릴 마음이 생겼다. 이에 久禮斯己母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 병사를 청했고, 奴須久利를 백제에 사신으로 가게 해서 병사를 청했다. 毛野臣이 백제의 병사가 온 것을 듣고 背評에서 맞이하여 쳤으나[背評은 지명이다. 또한 能備己富里라고도 이름 붙였다], 다치고 죽은 자가 절반이었다. 백제가 바로 노수구리를 잡아 수갑과 족쇄, 칼과 사슬을 채우고 신라와 함께 성을 포위했다. 아리사등을 호되게 꾸짖으며 말했다. “毛野臣을 내놓아라”. 毛野臣이 농성하며 스스로 굳게 지키니 사로잡을 수 없는 形勢였다. 이에 두 나라가 유리한 땅을 헤아려 한 달을 머무르다가 성을 쌓고 돌아갔는데 이름을 붙여 久禮牟羅城이라고 했다. 돌아갈 때에 길에서 부닥친 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의 다섯 성을 쳐서 빼앗았다.

C8 겨울 10월에 調吉士가 임나로부터 이르러 아뢰어 말했다. “毛野臣은 사람됨이 오만하고 정사에도 익숙하지 않아 포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라를 혼란케 하고 또 임의로 당을 지어 환란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目頰子를 보내 불러 들었다[目頰子是 자세하게는 알 수 없다]. C9 이해에 毛野臣이 부름을 받아 對馬에 도착하여 병을 얻어 죽었다(이하 생략)(秋九月, 任那使奏云, 毛野臣遂於久斯牟羅起造舍宅, 淹留二歲, (中略) 於是阿利斯等知其細碎爲事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悉知行迹, 心生齷背,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百濟則捉奴須久利, 柵械枷鎖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 出毛野臣, 毛野臣, 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二國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拔騰利枳牟羅, 布那牟羅, 牟雌枳牟羅,

阿夫羅，久知波多积五城。冬十月，調吉士至自任那，奏言，毛野臣爲人傲很不閑治體，竟無和解。擾亂加羅，又僞儻任意而思不防患，故遣目頼子徵召[目頼子未詳也]。是歲，毛野臣被召，到于對馬逢疾而死).

24년조의 기사를 C6·C7(D6)·C8·C9의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우선 C6은 원문의 인용을 생략했지만 그 전승의 대략은 毛野臣이 久斯牟羅 즉 웅진 지역에 舍宅을 조영하여 체류한 것, 일본인과 임나인과의 사이에 혼혈아인 韓子가 많이 생긴 것, 毛野臣의 실정이 많았던 것, 조정에서 調吉士가 사신으로서 파견되어 毛野臣을 소환하려고 한 것, 이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毛野臣이 伊斯积牟羅城(청도)까지 일시적으로 진격한 것 등이다. 이 기사가 일본 쪽 전승을 따른 것은 그 안의 인명이나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 미루어 알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구사모라에 체류한 것은 앞의 C5 기사의 “웅천에 행차했다[다른 책에는 말하길 “임나 구사모라에 행차했다”라고 했다](次于熊川[一本云, 次于任那久斯牟羅])”라고 적힌 것과 같은 사실로, 아마도 ‘다른 책’ 쪽의 전승일 것이다. 다음으로 C8 기사의 조정 사신 調吉士가 毛野臣에 관해 아뢰어 올린 것 등의 일은 C6 기사에 연결되는 같은 계통의 전승이다. 다음의 C9 기사의 毛野臣이 조정에 돌아오는 도중에 사망한 것과 그것에 이어지는 아내의 노래도 또한 같은 계통의 일본 쪽 전승이다.

위의 C6·C8·C9가 모두 毛野臣에 관한 일본 쪽 전승인 것에 반해 그 중간에 있는 “이에 阿利斯等이” 운운하는 기사(C7=D6)는 지명과 인명 등으로 보아도 별개의 사료로부터 나온 것임은 충분히 엿보아 알 수 있는 바이다. 아마도 23년 조의 D4 기사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7로 분류하면서 아울러 D6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아리사 등이 毛野臣과 결합되는 형태로 나오므로 C계통과 D계통이 결합된 전승이라고 하는 점에서 흥미 깊다.

한편 가라 경영에 관한 아리사등과 毛野臣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것 같다. 아리사등은 고령가라에서, 23년 조의 D3 기사처럼 신라와 가라의 통혼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는 신라와 제휴하는 방책으로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의 화평 관계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고 결국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화평이 깨어진 시기는 「계체기」의 이 기사가 게재되고 있는 연차인 23년(529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같은 조의 통혼하고 나서 불화하게 되는 이야기는 몇 년인가의 기간에 발생한 일을 일괄해서 기재한 기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리사등의 신라에 대한 정책은 화평과 전쟁이 교착하는 불안정한 상태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毛野臣의 경영 방침은 신라·백제와의 두 번의 회의, 즉 안라회의와 웅천회의가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신라와 교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러한 실책 때문에 毛野臣은 일본 본국으로부터 귀환 명령을 받고 있다. 아리사등에게 그 정책을 달리 하는 毛野臣의 귀환은 오히려 바라던 일이었으므로 신라와 백제에 병사를 요청하여 毛野臣을 몰아붙이려 했지만 결국 아리사등 자신도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병력에 의해 압박을 받아 두 나라에게 구례모라(현 풍 부근의 包山) 그 외의 5성을 점령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들 여러 성은 고령가라에 대한 낙동강을 낀 맞은편 언덕 지구이다. 『일본서기』에는 두 나라의 병사가 쳐서 빼앗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방면의 지역을 점령한 것은 백제군이 아니라 신라군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신라와 백제 양군의 협동작전은 생각할 수 없다. 23년 조의 D4 기사에 신라군이 포나모라와 그 외의 북쪽 경계 5성을 쳐서 빼앗았다고 적혀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점령을 말하는 것으로 아마도 같은 사건을 전할 것이다. 당시의 형세는 그 지리적 관계에서 보아도 아리사등이 거점으로 삼은 고령가라에 대한 신라의 진격이고 그 공방은 흠명조로까지 넘어가서 신라의 대승으로 결말지어진 것이다. 한편 毛野臣이 백제군을 背誣 즉 웅진에서 맞이해 치고 있는 대목에서 백제군이 서방으로부터 남해안을 따라 침입해온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계체기」 25년 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 “太歲 신해 3월(531년), 군사를 전진시켜 안라에 이르러 乞毛城을 조영했다”라고

적혀 있는 것에서도 백제군이 앞서 毛野臣이 거점으로 하고 있던 안라 방면에까지 그 창끝을 향해 온 것이 엿보인다. 요컨대 낙동강의 하류 지역에서 남가라는 신라에 병합되고, 구사(창원)와 웅천(웅진)에서 안라(함안) 방면은 백제의 진출이 보이며, 강의 중류 지역에서는 그 동쪽 지역이 신라의 침략을 받아, 홀로 서쪽 지역만 고령가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 안 되는 가라제국이 독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해설]

伊斯枳牟羅城 伊斯枳의 伊는 글자를 빌려온 음이 같은 것에서 경남 청도의 옛 이름 伊西國으로 추측된다(枳는 城·支 등과 같은 말). 이서국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례이사금 14년조에, “봄 정월, …… 이서고국이 와서 금성을 공격하니 우리가 병사를 크게 일으켜 방어했으나 물리치지 못했다. 홀연히 기이한 병사가 왔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모두 대나무잎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군대와 함께 적을 쳐서 깨뜨린 후에 어디로 돌아갔는 지를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문득 수만 개의 대나무잎이 죽장릉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 말미암아 國人이 이르기를 선왕이 陰兵으로 도와 싸웠다고 했다(春正月, …… 伊西古國來攻金城, 我大舉兵防禦, 不能攘, 忽有異兵來, 其數不可勝紀, 人皆珥竹葉, 與我軍擊賊破之, 後不知其所歸, 人或見竹葉數萬積於竹長陵, 由是國人謂, 先王以陰兵助戰也)”라고 하는 전승을 신고 있다. 제14대 유례이사금의 시대는 「신라본기」에서는 전설시대에 속해서 기년적으로는 물론 신빙할 수 없지만 이서국과의 항쟁은 신라의 전승에 남을 정도였다. 이 竹長陵(竹現陵)에 얽힌 죽엽군의 전설은 유명했던 것 같아서 『삼국유사』 권1(기이) 「未鄒王竹葉軍」단에 기재되어 있다. 죽현릉은 김씨 최초의 즉위자 미추왕의 능묘이고 죽엽군의 전설뿐만 아니라 후일까지 신라의 호국신앙과 결합된 전승을 가지고 있어 신라 국정의 쇠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제30대 혜공왕 때에도 호국의 기이한 상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호국신앙이 결합된 전설에 이서국과의 전투가 채택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신라인의 가슴속에 남은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을 시사하고 있고 민족 신앙에 얽힌 전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는 북부여와 고구려 등의 오래된 나라와 나란히 이서국이라고 하는 한 단락을 배치하여 “노례왕 14년, 이서국인이 와서 금성을 공격했다. 운문사에 옛적부터 전해진 「제사납전기」를 보면 정관 6년 임진²⁹)에 이서군 금오촌의 영미사가 전담을 바쳤다. 곧 금오촌은 지금의 청도땅이다. 즉 청도는 옛 이서군이다(弩禮王十四年, 伊西國人來攻金城, 按雲門寺古傳諸寺納田記云, 貞觀六年壬, 伊西郡今郜村零味寺納田, 則今郜村今清道地, 卽清道郡古伊西郡一)”이라고 그 故地를 고증하고 있다. 물론 유례왕 14년이라고 하는 기년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광개토왕비」의 ‘安羅人戍兵’처럼 이 任那諸國인 이서국인이 왜군과 함께 신라성에 공격해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毛野臣이 이 지역 즉 이사지모라성을 신라군과 쟁탈한 것은 이 지방 일대가 신라의 영유로 돌아가기 직전의 전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久禮斯己母·奴須久利 두 인명은 고증의 단서가 없다. 다만 인명 가운데의 己와 奴는 백제식의 음을 빌려온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계통 사료를 따른 기사인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背評 다른 이름을 能備己富里라고 불렀다고 한다. 能은 국사대계본에 “能은 원래는 熊이라고 썼다. 前本·寮本·北本에 의거해 고쳤다(能, 原作熊, 據前本寮本北本改)”라고 고감하고 있다. 원본대로 熊이라고 하면 다 음과 같이 고증할 수 있다. 이제 熊備己富里的 備己富里는 背評(해코호리)와 같은 말로 아래의 설명처럼 主邑·邑落을 의미하는 말이고 熊이 고유명일 것이다. 熊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는 웅천이 추측된다. 『동국여지승람』에 “熊川縣(郡名), 熊只·熊口·熊神·屏山·熊山”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의 웅천이다. 웅천이 이 지방의 主邑이었으므로 배평으로도 불렀을 것이다(위의 屏山은 이 칭호를 전한 것일까). 배평은 23년 조의 금관 4촌 가운데의 背伐과도 같은 이름이지만 과연 같은 곳이었는지 결정하기는 어렵다. 主邑적인 칭호로 같은 이름의 다른 곳이었을 지도 모른다. 評은 『양서』 「신라전」에 “그 읍이 안에 있는 것을 喙評이라고 부르고 밖에 있는 것을 邑勒이라고 부른다(其邑在內曰喙評, 在外曰邑勒)”이라고

29) [역자 주] 원문은 ‘貞觀六年壬’으로 ‘辰’이 빠져 있으므로 수정하였다. 정관 6년은 63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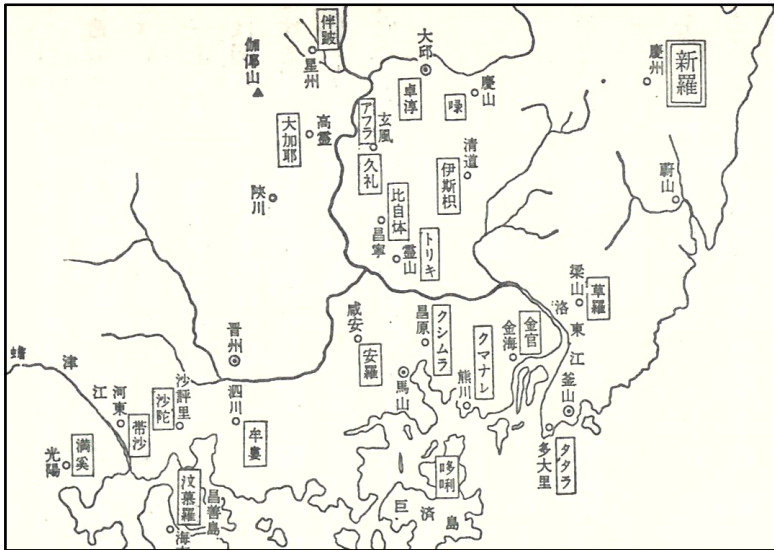
적혀 있는 評과 같은 뜻으로, ‘喙의 評’으로 해석된다. 評의 한국식 훈 ‘己富里’가 처음 보이는 사례가 여기의 背評으로 코호리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한국 쪽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빌린 글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槽屋評造春米連廣國”(妙心寺鍾銘-文武 2년)을 시작으로 그 사용례가 드물지 않고 일본 郡制 성립 문제의 연구 자료로도 되고 있다. 한국어로는 『훈몽자회』 관아 조에 “州 kour,chyu 郡·縣·邑(같은 훈)”으로 적혀 있다. 옛적에는 ko-bur로 大邑의 의미이다. pur,bur는 ‘위지」 「한전」 가운데의 국명에 某卑離라고 적혀 있는 예가 많은데 卑離는 이 말이고 고대 음악 국가를 의미한 것이다.

久禮牟羅城 경상북도 현풍의 包山(kurae-moi)에 있는 산성으로 『동국여지승람』에 “玄風縣(山川), 琵琶山(이하 분주) 一名苞山, 在縣東十五里”라고 적혀 있다. 아유카이씨가 包의 訓인 k'ur(어근)를 따라 包山 즉 구레모라라고 고증하신 것은 탁견이다(『잡고』7 下, 93쪽). 이 지역은 신라가 진출하는 코스 of 수순대로의 길인 대구(탁순) 방면으로부터 서남방에 위치해서 맞은편의 이사지모라와 나란히 낙동강 하구 방면을 방어하는 요충 지점이다. “두 나라가 편리한 지역을 해아려 체류하기를 한 달이 되지 않았다. 성을 쌓고 돌아갔다. 부르기를 구레모라성이라 했다”고 적혀 있어 신라와 백제 두 나라 가운데 누가 점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는 백제의 손에 있었던 것 같지만, 『흠명기』 5년 3월 조 백제왕의 奏文에 “신라가 봄에 喙(喙은 마땅히 卜으로 써야할 것이다) 淳을 취했다. 곧 우리 구레산의 수비병을 쫓아내고 드디어 이를 소유했다. 안라에 가까운 곳은 안라가 耕種한다. 구레산에 가까운 곳은 신라가 耕種한다. 각자 경작하여 서로 침탈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즈음에는 완전하게 신라의 영유로 돌아간 것 같다. 계체 때는 낙동강을 가운데에 끼고 구레모라 방면의 신라와 맞은 편 언덕의 안라(함안)가 길항해서 평형 상태에 있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체 말기부터 흠명 초기에 걸쳐서 낙동강의 동방 지구는 일본·신라·백제의 혼전 지대로 변해 갔다.

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5성 「흠명기」 5년 11월 조 백제왕의 奏文에 “신라와 안라 양국의 경계에 큰 江水가 있어

요해의 땅이다. 내가 이곳에 의거하여 6성을 수선하려고 한다”, “구례산의 성은 막히면 스스로 병기를 던지고 항복할 것이다. 탁순국 또한 다시 마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작전을 말하고 있다. 6성 즉 구례산을 핵심으로 해서 주변의 5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5성이라는 것은 위에 든 5성에 다름 아니다. 包山을 핵심으로 해서 대구(탁순)에 마주하여 진을 친 지구일 것이다. 騰利枳牟羅의 勝利(토리)는 매우 많은 지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특정할 지역을 추측하기 어렵지만 靈山(靈의 옛 훈은 tor)에 비정하면 포산으로부터 남쪽으로 가서 안라(함안)에 이르는 중간점으로 강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의 정세로도 타당한 추측지로 이해할 수 있다. 布那牟羅. 布那는 후나—후리를 빌려온 음이다. 아유카이씨는 창녕(比子伐·比自火·火王)으로 추측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지명이 많으므로 이것도 결정하기 어렵지만 창녕은 포산과 영산의 중간에 있던 옛 國 ‘比自火’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추측도 타당할 것이다. 23년 조의 須那羅(金官) 4촌의 費知(發鬼·費知鬼)도 역시 같은 지명. 또한 같은 해 3월 是月 조(D4 기사)의 가라와 신라의 다톨에서 刀伽·古跋·布那牟羅·북쪽 경계의 5성을 신라가 쳐서 빼앗아 갔다고 적혀 있는데 모두 아리사등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다른 전승으로 보아도 좋다. 比自火가 완전하게 신라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진흥왕대로 진흥왕 16년(흥명 16년, 555년)에 비사벌에 완산주가 설치되고(『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은 22년(흥명 22년)에 이 지역에 순수해서 비석을 세우고 있다(『진흥왕순경창녕비』). 다음으로 牟雌枳牟羅에 대해서 아유카이씨는 경남 청도 燈旨里(無愁)로 (無愁·無始와 같은 음을 빌린 글자로) 추측하고 있다. 같은 지점은 창녕의 북방 그 나라의 里로 약 1리 반에 있고 가까이의 旺嶺山에 산성터가 있다고 한다. 阿夫羅는 아유카이씨를 따라 玄風의 북방 그 나라의 里로 약 반리의 雙山峴으로 추측(『잡고』 7 下, 97쪽). 『삼국사기』 「지리지」 聞韶郡 조에 “比屋縣本阿火屋縣[一云, 并屋], 景德改名”이라고 적혀 있는 并山·雙山으로도 불리고 있다. 比屋·并屋·并山·雙山은 모두 옛 이름 阿火屋의 음을 전하는 것으로 比·并·雙에 훈인 apuri 즉 阿火 apur(火의 훈인 pur)로 훈을 빌린 것. 屋은 훈인 ök의 ö을 빌려 어미를 나타낸 것이므로 阿火屋 즉 apuro→阿

夫羅이다. 또한 아유카이씨는 “琵琶山(苞山)을 중심으로 해서 임나의 영역에서 신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요해의 고갯길로서, ……이 雙山驛은 현 풍의 북방 琵琶山 서북단의 고갯길로서 신라에서 대구를 지나 임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고갯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타당한 해설이다. 그런데 이 지방은 召文國으로도 불리는 옛 國이 있었던 곳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벌휴이사금 2년 조에 소문국을 정벌하고 軍主를 두었다고 적혀 있다. 기년적으로는 신빙할 수 없지만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전승이다. 久知波多枳. 아유카이씨를 따라 “玄風縣(古跡) 仇知山部曲(在縣西南)”(『동국여지승람』) 오늘날의 求智面으로 추측. 久知는 kuti(저습지·늪지), 波多枳는 patki(底·下)를 의미해서 求智面이 낙동강 동안의 늪지대인 것에 말의 의미상 일치하는 지명이다.



가라 경영 참고지도

[지도설명]

(지금 지명)	(옛 지명)
김해	金官·須奈羅·素奈良·加羅·大加羅·任那(협역)·南加羅
고령	加耶·大加羅
성주	伴跋·碧珍·本彼·加羅
창녕	比自炆·不斯·比子伐·非火·比只·兒山·發鬼·布那牟羅·費知鬼
함안	安羅·阿尸良·阿那加耶·安耶·阿羅羅·阿尸村
창원	久斯牟羅·仇史·屈自·己叱己利·古嵯
웅천	熊川·熊備己富里·背評
다대리	蹈備·多多羅
하동	帶沙·多沙
현풍	多伐·多良火
(구례)	久禮牟羅·苞山·琵琶山
(쌍산)	阿夫羅·阿火屋·比屋
영산	騰利枳牟羅
대구	卓淳
경산	喙
청도	伊斯枳牟羅·伊西國

다음으로 毛野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C8 및 C9의 기사는 일본 쪽 전승이다. 원문을 생략한 부분에는 毛野臣의 아내와 目頼子の 노래가 각 1수씩 게재되어 있다. 전자의노래에 대해서 이제까지 주석자는 毛野臣의 아내가 지아비의 시신이 실려 오는 배를 맞이하는 정경을 상상해서 노래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쓰다 소키치 박사는 “한반도 경략에 관여한 毛野臣과 目頼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수의 노래가 게재되어 있지만 앞의 노래는 그 뜻을 보아도 이러한 경우의 그것 같지는 않고 ‘けなのわくこ’가 毛野臣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뒤의 노래는 딸이 한반도에 온 것을 귀여워했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目頼子の 이름도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까. ……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는 노래를 毛野臣에 결부시켜 기록했을 뿐인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학이 보는 바와는 이해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毛野臣의 아내가 실제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설화한 毛野臣의 한반도 경영 이야기가 노래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유명한 전승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사적의 전승을 말하는 옛적의 사람은 실제의 감정이 향하는 대로 노래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 『일본서기』 찬자는 기사의 조작자가 아니라 그 채용자였다.

IV. 결어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경영 기사의 분석과 고증을 시도해 왔다. 「계체기」 찬술의 과정과 그 내용의 신빙도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毛野臣에 관한 기사 가운데 일본쪽 전승에 의거한 것은 24년기의 C6·C8·C9 및 23년기의 C5의 일부이다. 이들 전승은 약간 전설화되고 때로는 이야기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해서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 백제 계통 문헌, 즉 『백제본기』 및 「다른 책」을 따른 기사는 23년기의 C3·C5·C7이고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제법 신빙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백제 쪽 문헌에 과연 近江毛野臣의 이름, 혹은 그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명이 기재되어 있었던가, 그 점에 의문이 남는다.

○ 『일본서기』 찬자가 책상 위에서 작문한 기사로서는 21년기의 C1·C2 및 23년기의 C4를 지적할 수 있다.

○ D기사는 毛野臣과 관계가 없는 가라 문제의 기사이지만 모두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일 같다. 따라서 찬자는 毛野臣과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편년하여 기재하고 있다.

○ 백제 계통 사료를 따른 전승은 3년 끝내러면 사실적 연차를 얻을 수 있지만 일본 쪽 전승은 애초에 연차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毛野臣의 한반도 경영이 금관국(남가라) 멸망(532년)의 앞인지 뒤인지, 그 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서기』가 그것을 금관국 멸망의 전후에 배치해서 편년사로 하고 있는 것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해도 멀리 떨어지지 않는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계체기」는 한일 두 계통의 이질적인 사료를 모아 게재한 것이어서 그 사이에는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흠명기』의 『백제본기』 일변도적인 찬술보다도 두드러진 고생의 흔적이 엿보인다. 새삼 그 노고가 크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65년 5월 31일)

주제어 : 繼體紀, 日本書紀, 近江毛野臣, 加羅, 或本, 백제본기,
신라본기

[투고일: 2018.10.14, 게재확정일: 2018.11.30.]

[역자 후기]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는 이 논문에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이래 『일본서기』의 한국 관계 기사를 부정적으로 비판해 온 경향을 극복하고, 일본서기 기록을 이용해 사실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계체기」 기사를 각각의 사료 계통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於是’ 등의 접속사적 어구가 사료 계통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지금도 『일본서기』의 한국 관계 기사를 이해에 할 때 수용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탁견이었다. 다만 이렇듯 면밀한 사료 고증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와서는 쓰다를 비롯한 기존의 일본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관성적으로 단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

가 가지는 한계 또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인용된 사료 원문은 모두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역자의 사료 이해와 저자의 사료 이해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문 뒤 괄호 안에 저자가 인용한 사료의 원문을 구두점과 함께 병기하였음을 밝혀둔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계체기」의 기록을 A~D로 세밀하게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그 사료의 전부가 논문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료 기호별로 순서가 뒤섞이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자의 분석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역자가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료 A~D를 전체하고 사료 기호별로 표로 분류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A	
1	六年(512)夏四月辛酉朔丙寅, 遣穗積臣押山, 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卅匹.
2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且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 迺以物部大連籙鹿火, 宛宣勅使. 物部大連, 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夫住吉大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百濟·新羅·任那等, 授記胎中譽田天皇. 故太后息長足姬尊, 與大臣武內宿禰, 每國初置官家, 爲海表之蕃屏, 其來尙矣. 抑有由焉. 縱削賜他, 違本區域. 綿世之刺, 臣離於口. 大連報曰, 教示合理, 恐背天勅. 其妻切諫云, 稱疾莫宣. 大連依諫.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并制旨, 依表賜任那四縣. 大兄皇子, 前有緣事, 不關賜國, 晚知宣勅. 驚悔欲改. 令曰, 自胎中之帝, 置官家之國, 輕隨蕃乞, 輒爾賜乎. 乃遣日鷹吉士, 改宣百濟客. 使者答啓, 父天皇, 圖計便宜, 勅賜既畢. 子皇子, 豈違帝勅, 妄改而令. 必是虛也. 縱是實者, 持杖大頭打, 孰與持杖小頭打痛乎. 遂罷. 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 與哆唎國守穗積臣押山, 受百濟之賂矣.
B	
1	七年(513)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郎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2	冬十一月辛亥朔乙卯，於朝庭，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斯羅汶得至，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伴跋既殿奚及竹汶至等，奉宣恩勅。以己汶·滯沙，賜百濟國。		
3	是月，伴跋國，遣戡支獻珍寶，乞己汶之地。而終不賜。		
4	八年(514)三月，伴跋築城於子吞·帶沙，而連滿奚，置烽候邸閣，以備日本。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而緝麻且奚·推封。聚士卒兵器，以逼新羅。駢略子女，剝掠村邑。凶勢所加，罕有遺類。夫暴虐奢侈，惱害侵凌，誅殺尤多。不可詳載。		
5	九年(515)春二月甲戌朔丁丑，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仍勅，副物部連[闕名]，遣罷歸之[百濟本記云，物部至至連]。		
6	是月，到于沙都嶋，傳聞伴跋人，懷恨銜毒，恃強縱虐。故物部連，率舟師五百，直詣帶沙江。文貴將軍，自新羅去。		
7	夏四月，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伴跋興師往伐。逼脫衣裳，劫掠所齎，盡燒帷幕。物部連等，怖畏逃遁。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嶋名也]。		
8	十年(516)夏五月，百濟遣前部木弼不麻甲背，迎勞物部連等於己汶，而引導入國。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助加國物，積置朝廷。慰問慰勸。賞祿優節。		
9	秋九月，百濟遣州利印次將軍，副物部連來，謝賜己汶之地。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請代博士段楊爾。依請代之。		
10	戊寅，百濟遣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副高麗使安定等，來朝結好。		
C		D	
1	十一年(527)夏六月壬辰朔甲午，近江毛野臣，率衆六萬，欲往任那，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己吞，而合任那。於是，筑紫國造磐井，陰謀叛逆，猶豫經年。恐事難成，恆伺間隙。新羅知是，密行貨賂于磐井所，而勸防邊毛野臣軍。		
2	於是，磐井掩據火豐二國，勿使修職。外邀海路，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戰船，內遮遣任那毛野臣軍，亂語揚言曰，今爲使者，昔爲吾伴，摩肩觸肘，共器同食。安得率爾爲使，俾余自伏備前，遂戰而不受。驕而自矜。是以，毛野臣，乃見防遏，中途淹滯。天皇詔大伴大連金村·物部大連麤鹿火·許勢大臣男人等曰，筑紫磐井反		

	<p>掩, 有西戎之地. 今誰可將者. 大伴大連等僉曰, 正直仁勇通於兵事, 今無出於麤鹿火右. 天皇曰, 可.</p>	
		<p>1 廿三年(529)春三月,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恆避嶋曲[謂, 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祢], 每苦風波. 因茲, 濕所齋, 全壞无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p>
		<p>2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p>
		<p>3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 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餘.</p>
		<p>4 由是, 加羅結僮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懸,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讎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 還王女. 加羅已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 拔刀伽·古跛·布那牟羅, 三城. 亦拔北境五城.</p>
<p>3</p>	<p>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已吞.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p>	

	等，在於堂下。凡數月再三，謨謀乎堂上。將軍君等，恨在庭焉。	
4	是月，遣使送己能末多干岐。并詔在任那近江毛野臣，推問所奏，和解相疑。	
5	於是，毛野臣，次于熊川[一本云，次于任那久斯牟羅]，召集新羅·百濟，二國之王。新羅王佐利遲遣久遲布禮[一本云，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百濟遣恩率彌騰利，赴集毛野臣所，而二王不自來參。毛野臣大怒，責問二國使云，以小事大，天之道也[一本云，大木端者以大木續之。小木端者以小木續之]。何故二國之王，不躬來集受天皇勅，輕遣使乎。今縱汝王，自來聞勅，吾不肯勅。必追逐退。久遲布禮·恩率彌騰利，心懷怖畏，各歸召王。由是，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新羅，以大臣爲上臣。一本云，伊叱夫禮知奈末]，率衆三千，來請聽勅。毛野臣，遙見兵仗圍繞，衆數千人，自熊川，入任那己叱己利城。伊叱夫禮智干岐，次于多多羅原，不敢歸待三月。頻請聞勅。終不肯宣。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於聚落乞食。相過毛野臣僮人河內馬飼首御狩。御狩入隱他門，待乞者過，捲手遙擊。乞者見云，謹待三月，佇聞勅旨，尙不肯宣。惱聽勅使，乃知欺誑，誅戮上臣矣。乃以所見，具述上臣。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是爲四村。一本云，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盡將人物，入其本國。或曰，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毛野臣之過也。	

		<p>5</p> <p>夏四月壬午朔戊子，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蓋阿利斯等也]，啓大伴大連金村曰，夫海表諸蕃，自胎中天皇，置內官家，不棄本土，因封其地，良有以也。今新羅，違元所賜封限，數越境以來侵。請奏天皇，救助臣國。大伴大連，依乞奏聞。</p>
<p>6</p>	<p>廿四年(530)秋九月，任那使奏云，毛野臣，遂於久斯牟羅，起造舍宅，淹留二歲[一本云三歲者，連去來歲數也]，懶聽政焉。爰以日本人與任那人，頻以兒息，諍訟難決，元無能判。毛野臣樂置誓湯曰，實者不爛。虛者必爛。是以，投湯爛死者衆。又殺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大日本人，娶蕃女所生，爲韓子也]，恆惱人民，終無和解。於是，天皇聞其行狀，遣人徵入。而不肯來。顧以河內母樹馬飼首御狩，奉詣於京而奏曰，臣未成勅旨，還入京鄉，勞往虛歸。慚惡安措。伏願，陛下，待成國命，入朝謝罪。奉使之後，更自謨曰，其調吉士，亦是皇華之使。若先吾取歸，依實奏聞，吾之罪過，必應重矣。乃遣調吉士，率衆守伊斯枳牟羅城。</p>	
<p>7</p>	<p>於是，阿利斯等，知其細碎爲事，不務所期，頻勸歸朝，尙不聽還。由是，悉知行迹，心生讎背。乃遣久禮斯己母，使于新羅請兵。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毛野臣聞百濟兵來，迎討背評[背評地名。亦名能備己富里也]，傷死者半。百濟，則捉奴須久利，枉械枷鎖，而共新羅圍城。責罵阿利斯等曰，可出毛野臣。毛野臣，嬰城自固。勢不可</p>	<p>6</p> <p>於是，阿利斯等，知其細碎爲事，不務所期，頻勸歸朝，尙不聽還。由是，悉知行迹，心生讎背。乃遣久禮斯己母，使于新羅請兵。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毛野臣聞百濟兵來，迎討背評[背評地名。亦名能備己富里也]，傷死者半。百濟，則捉奴須久利，枉械枷鎖，而共新羅圍城。責罵阿利斯等曰，可出毛野臣。毛野臣，嬰城自固。勢</p>

	<p>擒. 於是, 二國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 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五城.</p>	<p>不可擒. 於是, 二國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 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五城.</p>
8	<p>冬十月, 調吉士至自任那, 奏言, 毛野臣爲人傲佞, 不閑治體. 竟無和解, 擾亂加羅. 倜儻任意, 而思不防患. 故遣目頰子, 徵召[目頰子未詳也].</p>	
9	<p>是歲, 毛野臣, 被召到于對馬, 逢疾而死. 送葬尋河, 而入近江. 其妻歌曰, 比羅哥馱喻, 輔曳輔枳能朋樓, 阿苻美能野, 愷那能倭俱吾伊, 輔曳符枳能朋樓. 目頰子, 初到任那時, 在彼鄉家等, 贈歌曰, 柯羅屢爾鳴, 以柯爾輔居等所, 梅豆羅古枳馱樓, 武哥左屢樓, 以祇能和馱喇鳴, 梅豆羅古枳馱樓.</p>	